

1

나를 키우는 자양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오늘의 현실속에서도 청소년들은 책읽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 장을 읽어가다 보면, 책읽기가 주는 유익함이 이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장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다.

삶이 들어있는 책 / 3
시야를 넓히는 길 / 8
함께 사는 삶 / 11
세상을 보는 눈 / 18
올바른 판단 / 23
과거와 현재의 대화 / 29
생각하는 힘 / 32
삶의 진주 / 35
미래의 발견 / 39
살아나는 어휘들 / 43
살아있는 지식 / 45
마음의 양식 / 50

삶이 들어있는 책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하나? 책을 읽을 수 없도록 만드는 청소년을 둘러싼 지금의 현실속에서 그래도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그 대답은 이것이다. 책은 삶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책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며 우리 삶을 되돌아 본다.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책을 통해 깨닫게 된다.

현실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꾸며 쓴 것이 소설이고, 이를 운율에 맞춰 표현한다면 시가 될 것이다. 실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전기가 있으며, 자신의 생활을 담담하게 풀어나간 생활글(수필)도 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를 담고 있는 글의 종류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 우리는 그 분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해방 후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하나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다가 끝내는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얻어 들은 단편적인 이야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기만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분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에 백범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을 읽는다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저술한 『백범 일지』는 그 분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선생님의 두 아들에게 주기 위해 쓰신 자서전이다. 자기 자신의 행적 뿐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흐름과 민족정기가 살아있음을 보여 준 책이다. 그분의 항일투쟁은 1896년 명성황후를 죽인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 일본군 장교를 죽임으로써 시작된다. 그 길로 그 분은 독립운동의 길에 뛰어 들었으니 자랑스러운 길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강인한 선생



님의 모습과 순박하고 진솔한 인간의 모습, 아들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전해주는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책 속에 담긴 이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다.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떨쳐 일어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한편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평생을 명예롭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한평생을 인류에를 실천하기 위해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향해가는 한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질병과 더위, 때때로 닥쳐오는 위험 속에서도 끝끝내 사랑을 실천하는 그의 삶을 보며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에만 급급하는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 책을 꼽으라면 한이 없다. 그 가운데에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삶도 있고 또 비극적인 삶도 있다. 썩쩍쭈베리가 쓴 『어린왕자』를 읽으면 우리는 수치 놀음이나 하며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여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자와 장미꽃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삶이란 사막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안에 샘물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샘물이 삭막한 삶 속에 있기 때문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토마스 하이드의 『테스』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여자를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허황된 욕망이 인간의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비극을 낳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의 ‘순결’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한다.

위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과는 좀 먼듯 느껴진다면 가까운 우리 친구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이 담긴 책을 만나보기로 하자.

아침이면 항상 어머니 목소리가
탁상시계처럼 정확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야!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어머니는 참 일찍 일어나신다.
늦게 주무시나 일찍 주무시나 항상.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억지로 일어나려면 꼭 불쌍한 사람 같다.
나는 더 자고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쓴다.

아침부터 걱정거리가 참 많다. 돈걱정, 숙제걱정.
숙제는 학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돈은 집에서 타가야 하니까 미안하다.
“○○야! 빨리 일어나 밥먹어”하면
잠에 못이겨 “나 밥 안먹어요.” 한다.

학교 시간은 더럽게 긴데
잠자는 시간은 왜 이리 짧을까
학교가 잠자는 곳이면 좋겠다.
책상이 침대라면 좋겠다.

.....

(『밥 먹으며 시계 보고 시계보며 또 먹고』에 실린 같은 제목의 시)

누구나 이 글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생활을 보는 듯 할 것이다. 잠 좀 폭 잤으면 좋을텐데 졸린 눈을 비비며 학교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를 보며 깊은 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좀 더 즐거운 학교생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을 꿈꿀 것이다.

이렇게 책 속에는 다양한 삶이 들어 있다. 한 인간의 삶, 민족의 삶, 아름다운 삶, 우리가 비판해야 할 삶까지도 담겨 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보며 진지하고 올바른 ‘인생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시야를 넓히는 길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다. 그는 우물 안에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다. 우물 밖의 세상은 개구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개구리는 그 순간 충격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고 크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닌가 반성해 보자.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주위를 둘러 보아도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와 이웃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세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끔 우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내 또래의 아이들은 지금 무얼하며 지낼까? 혹은 내가 가보지 못한 섬의 아이들은 무얼 하나, 농촌의 생활은 어떠한 것일까? 도시 아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멀리 다른나라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등등 무한히 궁금증을 느낄 때가 있다.

책을 통해 알게 되는 다양한 삶 속에는 우리와 이웃한 삶이 모두 들어 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

나는 우리 마을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다. 부끄러운 것은 집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우리만 친구가 오면 부끄럽다.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강아지가 사는 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화장실이 없어서 남의 집 것을 빌려 쓰는데, 운동 경기장에 입장권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처럼 줄도 서고 돈도 내야해서(한달에 1천원)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더구나 옆집 남학생들이 돌을까봐 제대로 용무를 못 볼 때가 많다. …… 우리 마을에서 딱한 것은 아픈 사람이 많은 것과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한 집에 아픈 사람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 …… 우리는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만 문을 닫고는 답답해서 못 살 것 같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그게 외롭고 가난한 것 같이 보인다. 가난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달동네가 나는 그래도 자랑스럽다.

(『세 개의 사과이야기』에 실린 「우리 마을 ‘달동네」라는 글)

부유하게 사는 학생이 이 글을 본다면 무척 놀랄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 그 학생은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농촌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농촌 사람들이 땀흘려 일하는 이야기를 책을 통하여 만나게 될 때, 자기가 먹는 밥에 대하여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생강캐는 날』이란 글모음은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농촌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농촌 학생들의 생활이 담겨있다.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가난한 농촌생활,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거드는 아이들의 모습 등이 진솔하게 차곡차곡 실려 있다.

또한 『홀로 앓는 풀잎들의 이야기』라는 책은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한 책이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고민을 보며, 우리는 그것에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고민과 비교하며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이웃의 글들을 읽으며 우리의 시야를 점점 넓혀 간다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에 머물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함께 사는 삶

책을 통해 우리 이웃의 삶을 알게 되고 또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게 되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것은 마치 따뜻한 방안에 앉아 창문 밖을 보며 ‘아, 저기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굶주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다. 이웃의 삶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책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까지는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책을 읽어야 한다. 다음의 우화 한 편을 보기로 하자.

두 사람이 눈보라 치는 벌판을 가고 있었다. 눈보라가 사정 없이 치고 추위는 살을 에는 듯 하고, 인적도 없고 민가도 눈에 띄지 않는 외딴 길이 계속되고 있었다. 얼마쯤 가다가 두 사람은 눈 위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려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거요.”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그러자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말했다.

“무슨 애깁니까? 우리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국에 저런 노인네까지 끌고 가다가는 다 죽게 될 거요.”

그러나 애기를 꺼낸 사람은 불쌍한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노인을 업고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다. 다른 한 사람은 앞서 가버리고 보이지 않았다. 노인을 업은 사람은 힘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그렇지만 무거운 것을 꼭 참고 앞으로 나아갔다.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흘렀다. 더운 기운이 끼쳐서인지 등에 얹힌 노인은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도 춥지 않았다.

마침내 이들은 마을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한 남자가 꿈뽕 언 채로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시체를 살펴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 가던 그 사람이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우리는 남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는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도 어찌보면 눈보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야기 속의 한 남자는 쓰러진 노인을 보며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자기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누구인가? 살고자 한 사람은 죽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살았다. 노인과 남자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체온 때문이었다. 서로의 체온이 둘을 살려낸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교훈인가? 이런 우화가 담긴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글의 끝에서 우리는 코끝이 찡하는 감동까지도 받는 것이다. 이런 글을 계속 읽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미’이다. 책은 오락보다도 더 재미있을 수 있다. 적어도 오락처럼 동전을 집어 넣어야 계속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흥미를 넓혀가는 세계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생활은 시들시들하고 피로운 일 뿐인데, 책 속에서 딱딱한 인생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텔레비전이나 보고 머리를 식히겠어요. 테트리스나 바블바블(컴퓨터 오락의 한가지)을 하는게 더 신나지 않을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까요?”

책읽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책은 재미없다는 것이다. 딱딱한 교훈이나 주려고 하고, 슬프고 묵직한 이야기로 마음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정말 책읽는 건 텔레비전이나 오락보다 재미없는 일일까? 그렇지않다. 배꼽이 빠질만큼 우스운 내용을 담은 책도 있고, 한번 잡으면 손에서 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끄는 책도 있다. 딱딱한 듯하지만 잘 음미하면 무궁무진한 재미를 주는 책도 있다. 만일 두꺼운 책 읽기와 사람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책 읽기가 싫다면 우선 재미있는 책을 골라 읽어 보도록 하자.

어떤 사람이 술을 한잔 마시고 산길을 가는데, 어찌나 졸리든지 한쪽에서 좀 자려고 이리저리 자리를 보노라니 이상도 하지, 좋은 허리끈 하나가 있지 아니한가? 그 끈을 잡아보니 좀 이상했다. 다시 쥐어 보니까 스리슬쩍 빠져나가려고 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꼭 쥐어 보니까 이 끈이 더 힘을 주어 빠져나가려 한다. 호랑이 꼬리였다.

“아이구머니나, 호랑이 꼬리로구나!”

호랑이는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사람은 놓치면 안되니까 바위에 발을 버티고 뒤로 자빠지고... 호랑이 꼬리로 줄다리를 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오후가 지나 해질 때가 되었다. 놓을 수도 없고 계속 붙들고 늘어질 수도 없고. 천만다행히도 이때 종이 하나 지나갔다.

“여보시오 스님, 이 호랑이를 좀 때려잡아 주십시오. 거기 있는 몽둥이로 호랑이 대가리를 사정없이 때리시오. 자비가 많은 신 스님이시여, 이왕이면 사람이 사람편을 드는 것이 자비가

아니리까? 어서 패소서.”

스님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아, 비록 호랑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데 살계를 지켜야 할 중으로서 어찌 죽이리까? 그러니 나는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패 죽여 달라고 하소서. 자비를 지키기 위함이니 나를 이해하십시오. 어찌 불제자인 내가 호랑이를 죽이리까?”

“잠깐! 그러면 임무 교대를 합시다.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계시면 제가 몽둥이로 이 호랑이를 패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마지못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소리쳤다.

“자, 어서 그 몽둥이로 호랑이 대가리를 패 죽이십시오. 설때리면 우리 둘은 다 죽습니다.”

사내는 놀리듯 말했다.

“아, 스님도 부정하셔라. 자비롭지 못하구려. 호랑이를 패 죽이라고 재촉하시다니. 나는 이제 스님을 본받아 불제자가 되려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단다』에 실린 이야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모은 책에서 뽑아본 이야기다. 이 글을 읽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읽다보면 웃음이 터져 나온다. 그리고 웃음 뒤에는 ‘말로만 자비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깨달음이 온다. 이런 이야기만 재미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담은 소설도 얼마나 재미있는가? 물론 그 안에는 슬픈 이야기도 있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말해주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어갈 수가 있다. 우리 현실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자기만 아는 사람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풍자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미진진하게 해준다. 따라서 책 속에서 느끼는 재미란 단지 흥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미속에 담긴 뜻까지도 함께 느껴지는 재미인 것이다.

오락실에 가서 또는 집에 있는 컴퓨터로 오락을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아, 조금만 이쪽으로 꺾하자. 앗 이걸 막아내야 해. 그렇지! 100원 넣고, 또 100원 넣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오락에 빠진다. 재미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많은 시간이 흘러 오락실을 나올 때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는 폭력적이고 외설스런 내용의 게임도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스트레스

를 풀게 하고 한편으로는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계속 그런 게임을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다가 뜨거운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천박한 호기심만을 충족시켜 주는 재미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책이 주는 재미는 ‘재미’ 그 이상인 것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물음을 하게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는 삶일까?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가난해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면 행복한 것일까? 돈은 인간에게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등등. 이 물음들은 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서 비롯되는 물음이다.

그 대답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한 몸 힘들더라도 이웃과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 삶의 자세를 일컬어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한다.

책읽기는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물론 모든 책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바른 가치관이 담긴 좋은 책이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오셔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결혼신청을 하러 와서 금상자, 은상자, 납상자를 고르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이들은 현란한 겉모양에 취해 금상자, 은상자를 고르지만 바사니오는 나름대로 생각한 끝



에 납상자를 고른다. 그 상자 안에는 포오셔의 초상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포오셔의 배필이 된다. 이 장면은 두고두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게 된다. 결이 현란하고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속까지 알찬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올바르게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떠지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바람 3형제의 이야기가 있다.

바람아버지가 아들 3형제를 불러놓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은 내일까지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네가지를 구해 오나라. 구해온 사람에게는 세상 구경을 두루 시켜주마.”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녔다.

큰아들은 어느 부잣집에 들어갔다. 그는 거기서 그 집 주인이 허리에 차고 있는 열쇠를 보았다. 금고 열쇠, 창고 열쇠, 집 열쇠, 보물함의 열쇠, 바로 네개였다. 그는 신이 났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그 열쇠들은 풍요와 부귀, 호화스러운 생활을 약속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아들은 어느 동네에 들러 아픈 사람을 보았다. 배가 아파 뿔뿔 뿔뿔 사람이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고는 기운을 차리는 것이었다. 둘째아들은 의사가 약을 지을 때 쓰는 저울에 달린 네개의 실을 보았다.

셋째아들은 동네를 이리저리 다녔지만 귀중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허름한 집에서 찬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그는 창문으로 살짝 집안을 엿보았다. 거기엔 엄마와 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엄마를 바라보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고, 엄마 역시 아기를 바라보며 따스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빛나는 것은 바로 엄마와 아기의 네 눈동자였다.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누가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셋째아들이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 사이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책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간다. 스토크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읽으며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알게 되고, 왜 남북전쟁이후에 링컨 대통령이 스토크 부인을 불러 노예해방의 공로를 인정하여 격려했는지도 알게 된다.

트리나 포올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마리의 애벌레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경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느낀다. 하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 겪는 시련의 과정임을 알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자신도 시련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나비의 찬란한 비상을 꿈꾸어보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중국 후한 시대의 관료들은 크게 부패해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청렴하고 고결한 관리도 없지는 않았다. 양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아는 것이 많고 청렴한 인물로서 관서 출신이기 때문에 ‘관서의 공자’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가 동래군의 태수로 부임하는 도중 창읍의 숙소에 묵었을 때 밤늦게 그 고장의 현령이 찾아왔다.

“태수 나오리, 소인을 모르시겠습니까? 은혜를 입었던 왕밀이옵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생각났다. 자기가 감찰관으로 있던 시절에 학식이 뛰어나 과거급제를 시켜주었던 인물이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왕밀은 금 열근이라는 거액을 양진에게 주려 하였다. 지난날 과거에 급제시켜 준 데 대한 은혜 갚음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대의 학식과 인품을 기억하는데, 그대는 나의 사람됨을 잊었던 말이요?”

양진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올시다. 태수 나오리. 이것은 결코 뇌물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도리일 뿐이올시다.”

“그대가 나의 예상대로 현령 자리에까지 올라주었으니, 나에게 대한 보은은 그것으로 족하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이 밤중에 알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 방에는 지금 태수님과 소인 밖에는 없으니…….”

“무슨 말이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알잖소?”

왕밀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갔다.

한 나라의 관리(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는 어떤 자세를 갖고 일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글이다. 비록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아름다운 한 여자가 허영때문에 평생 힘겹게 일하고 그 아름다움도 잃고, 세파에 찌들려 살아가는 이야기인 모파상의 『목걸이』를 읽으면서 우리는 허영이 낳은 엄청난 결과에 대해 놀라기도 한다. 그리고 그 충격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자리잡는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조금 커서 읽은 전거나 수필, 소설, 철학류의 책들 모두 우리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책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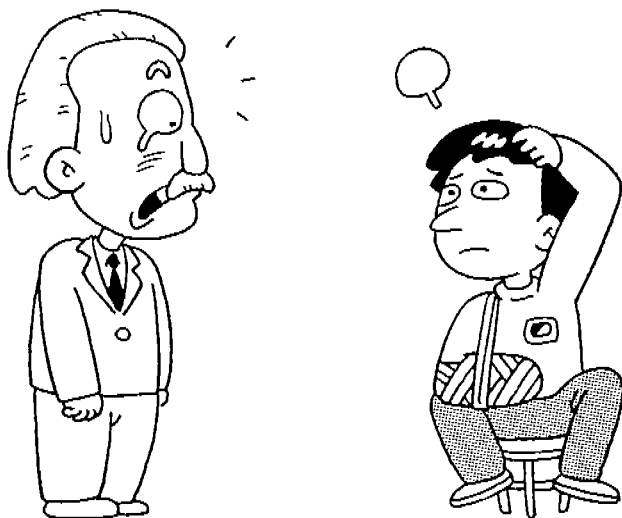
올바른 판단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곧 조그마한 일에
서부터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과 같다.
책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경솔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끝난 얼마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대학에서 한 교수가 어떤 일에 관하여 학생의 거수를 요구했다. 그런데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은 왼손을 들었다. 자기에게 야유하는 것이라 생각한 이 교수는 특히 그 학생을 옆두에 두면서 “오른손을 들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 학생은 그대로 왼손을 들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이 교수는 학생 옆으로 다가갔다. 놀랍게도 그 학생은 오른손이 없었다. 그리고 학생은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전쟁 중에 적탄에 맞아 없어졌어요.”라고 말했다. 그때 이 교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경솔하게 남을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어떤 어려움에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하게 된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우기며 싸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정말 난처했다.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람들은 두 여자를 솔로몬 앞에 데려갔다. 솔로몬은 사정을 듣고서 판결을 내렸다.

“서로 이 아기를 자기 아이라 주장하니 이 아이를 칼로 나눌 수밖에 없구나.”

그때 한 여자는 울며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니 그러지 말라고 대답했다. 다른 한 여자는 차라리 그러라고 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누가 아기 엄마인지 알아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보다도 아

이를 더 생각한다. 그것을 알았기에 솔로몬은 누가 아이 엄마인 줄 알아낸 것이다. 우리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모성애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책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관이 들어있는 『탈무드』에 실린 글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릴적부터 부모님들이 『탈무드』를 잠자는 아이들의 곁에서 읽어준다고 한다.

귀중한 것을 식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다섯가지 무기를 가진 젊은 왕자가 고행의 길을 떠났다.

어느 숲 앞에 다다랐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왕자에게 숲 속에는 끈끈이 털을 가진 거대한 도깨비가 살고 있는데 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잡혀먹었으니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왕자는 주저하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과연 거대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가로막고 나섰다. 왕자는 가지고 있던 무기 가운데 독화살을 쏘고 칼과 곤봉을 던졌으나 모두 끈끈이 털에 붙어버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네번째로 왕자는 자신의 손발로 치받고 머리로 받았으나 도깨비털에 붙어 달랑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잡혀먹힐 수밖에 없었다. 왕자는 말했다.

“도깨비여, 태어나면 한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지만 내 뱃속에는 벼락이란 무기가 하나 더 있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나를 잡아먹는다면 죽게 된다. 결국 벼락 때문에 나는 물론 너까지 죽게 된다.”

도깨비는 결국 용감한 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 마지막 무기인 벼락은 바로 지혜라는 무기였다.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농군이 살고 있었다. 농군은 나이 찬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돈을 한푼 두푼 모아 삼천냥을 마련했다.

‘이젠 며느리감만 고르면 되겠구나.’

농군이 이 궁리 저 궁리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사람이었다.

“저 사실은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주인님께서 삼천냥만 돌려 주십시오. 그 신세는 정말 잊지 않습니다.”

농군은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꿔준단 말인가. 손님은 농군의 맘을 짐작한 듯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더니 주먹만한 금덩이를 하나 내놓았다.

“돈 몇천냥 쓰려고 이 금덩이를 팔 수 없어 그렇습니다. 이걸 팔길테니 돈을 좀 꺾 주십시오.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 드리면 그때 이것을 다시 저한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군이 보니 그 금덩어리는 몇만냥어치는 될 것 같았다. 농군은 당장 쓸 돈도 아니고 해서 금덩이를 받고 돈 삼천냥을 내주었다.

며칠후 금개는 일을 하고 있는 농군의 조카가 집에 들렀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농군은 얼마 전에 금덩이를 받고 돈을 꾸 준 이야기를 하면서 금덩이를 내놓았다.

“아이구 삼촌, 이런 변이 있나, 삼촌이 속았습니다. 이건 금덩이가 아니라 납덩이입니다.”

농군은 조카에게 다른 곳에 가서 아무 말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는 주막 집에 나가 술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글쎄 이런 변이 어디 있소. 집이 망하자니 별일도 다 있지. 우리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와 금덩이를 하나 맡기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날 밤 어떤 죽일 놈의 자식이 금덩이를 훔쳐가지 않았겠소.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요.”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말은 삼시간에 퍼져서 돈 삼천냥을 꾸간 도적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게 웬떡이나! 이제 돈 삼천냥을 가지고 가서 금덩어리를 내라고 하면 그 어리숙한 놈이 무얼 내놓겠어. 제 재산을 다 팔 수밖에 없을 테지. 히히히.”

도적은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그는 부랴부랴 돈 삼천냥에 이자까지 갖춰 가지고 농군의 집에 갔다. 농군은 그를 반갑게 맞아 들였다. 도적은 삼천냥에 이자까지 내밀었다. 농군은 그 돈을 받아 천천히 세었다.

“자, 이젠 제가 맡긴 금덩어리를 내놓으시우.”

도적의 말에 농군은 도적을 쏘아보더니 껍쩍을 열고 금덩이를 꺼내 주었다. 도적이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자 농군은 “이 양심도 없는 강도 같은 놈”하며 준비해 둔 박달나무를 들었다.

약은 꾀로 남의 재산을 뺏으려던 도적은 이렇게 농군의 꾀에 걸려 잡힌 것이다.

이 두 이야기를 읽고 나면 뭔가 마음에 쏙이는 게 있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아, 그렇구나’하는 깨달음이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호
들갑을 떨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깨치고
이겨나갈지를 찾아야 한다고 책읽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
다. 이렇게 책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

책은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한다. 역사는 하나의 기록이다. 과거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의 기록이 후세에까지 전해져 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열국지』 『사기』 등의 중국역사서,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 역사서들이 대표적인 역사 책들이다.

그러나 역사책이 아니어도 책에는 역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여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소설을 읽을 경우에 그 시대의 시대상과 흐름을 알아야만 이해되는 대목이 생긴다.

“선생님, 저는 오늘 『몽실언니』를 읽었어요. 몽실이야 난남이를 업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인생이란 걸 생각했어요. 몽실이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험겨운 언덕길을 누군가를 업고 가는 것이 삶이라고요. 몽실이는 해방이 되자 일본에서 돌아왔지요. 뼈저리게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식구들을 보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생각했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은 몽실이 가족을 다시 고난속에 빠뜨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아버지도 전쟁터에 나가고 몽실이 사는 마을도 갈라져서 싸워야 했지요. 전쟁이 끝나고도 몽실이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갈라진 땅에서 가난하게……. 선생님 저는 『몽실언니』를 읽으며 우리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알았습니다.

『몽실언니』라는 책을 읽고 쓴 어느 학생의 편지글이다. 역사책은 아니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해방에서 6·25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역사가 몽실이의 삶에 어떤 그늘을 드리웠는지 알게 된다.

우리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시도 있다.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짱을 찢고

영원의 얼굴을 보았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

1894년쫓엔

돌에도 나무등결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

반도는 가는 곳마다
가뭄과 굶주림,
땅이 갈라지고 서당이 금갔다
하늘과 땅을 후비는 흙먼지

1862년

전봉준이 여덟살 되던 해
경상도 진주에서
큰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신동엽의 『금강』에서)

시를 읽으며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동학혁명 즉 갑오농민전쟁을 다룬 서사시이다. 농민들이 일어나 평등세상을 부르짖고 일본과 서양세력에 저항한 우리의 역사를 담은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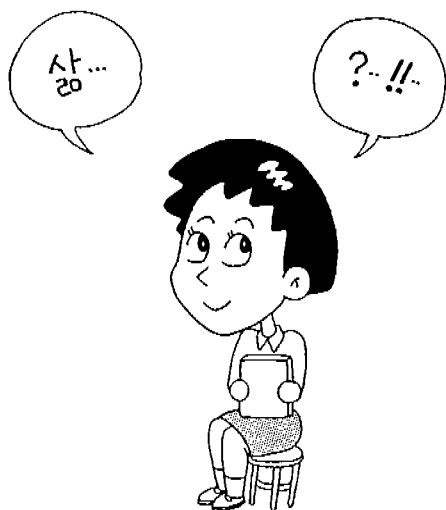
역사학자인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깨닫는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 맞부딪쳐 미래를 이루어낸다면 미래 역사는 그 ‘대화’로 말미암아 좀 더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생각하는 힘

한권의 책을 읽고 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덮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이거나 그가 읽은 책이 너무나 무의미한 책, 허접쓰레기같은 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을 읽었다면 그 주인공에 대해서든, 어떤 인물에 대해



서든, 이야기 전개에 대해서든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시를 읽었다면 시가 주는 감동을 가슴에 새기며 또 그 감동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다고 하자. 이 책은 베르테르라는 젊은이가 로테라는 여성을 알고 사랑하지만 알베르라는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살하고 만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베르테르는 죽었을까? 로테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고 사랑을 고백했다면 로테도 마음을 바꿔 베르테르를 선택했을 텐데. 아니야 그 당시 사회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베르테르가 마음을 바꿔먹었으면 어땠을까? 죽음을 택할 정도로 로테를 사랑한 걸까? 만일 내가 베르테르나 로테의 처지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깊은 생각 끝에 우리는 한단계 성숙한 자신을 보게 된다.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자기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투르게네프의 『첫사랑』 같은 책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첫사랑』은 주인공이 외모는 아름다우나 속은 타락한 지나이다라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이다. 왜 주인공은 얼굴만 보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사랑이란 게 대체 어떤 것인지, 자기 혼자 열정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사랑과 인생을 다룬 작품이외에도 우리나라 작가 최서해가 쓴 『탈출기』를 보면서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를 떠나 만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왜 가난해야 했는가를 생각하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고, 그가 집을 나가 가입한 xx단이 무엇일까요도 생각한다. 일제시대의 궁핍한 현실의 단면도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책이나, 전기, 탐험기, 모험소설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 원리에 대해 생각한다. 이렇게 책을 읽고난 후 생각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답을 얻기도 하고 의문으로 남은 것들은 나중에 또 다른 책을 읽으며, 또는 또다른 경험과 지식을 통해 답을 얻는다.

책을 읽고 난 후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 자기 삶을 바로 이 끌어가는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살의 진주

바닷가의 조개를 보면서 그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영롱한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모래알이 들어가면 오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역시 드물다.

그러나 굴쓰는 사람들은 사물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기 위해 별 것 아닌 듯한 일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진주」라는 글을 하나 읽어보자.

넓고 넓은 바닷가에 조개 마을이 있었다. 조개 마을에는 바지락과 다슬기와 고둥이 많이 살았다. 그러나 백합은 단 한 집 밖에 없었다. 그래서 백합은 제 몸매를 은근히 뽐내면서 지냈다.

태풍이 불어와 바다를 아주 심하게 활췌고 간 뒤였다. 깊은 바다 산호초 마을에서 진주조개가 하나 떠밀려 올라왔다. 허나 진주조개는 그저 평범한 조개일 뿐이었다. 오히려 겉모양은 백합한테 훨씬 못 미쳤다.

바지락이 말을 걸었다.

“진주 씨앗을 좀 얻을 수 없을까?”

진주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진주는 씨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야.”

손에는 짝을, 마음에는 꿈을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값진 보석을 가질 수 있지?”

“진짜로 사랑을 하면!”

이번에는 다슬기가 나서서 진주조개에게 물었다.

“진주를 가지면 어때?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

“아니야. 몸은 아주 아파.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런데 뭐하러 가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아파지는데.”

조개들은 피식피식 웃으며, 뿔뿔이 흩어졌다. 백합만이 홀로 남았다. 백합이 물었다.

“진주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줘.”

“그것은 사는 의미에 관계된 거야. 진주를 가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편하지. 주어진 시간에 먹고 즐기며 살면 그만이지.”

“진주를 가졌을 때는?”

“희망을 가졌다는 뜻이 돼. 언제 어디서 죽음이 나타나더라도 두렵지 않아. 죽음이란 그저 껍질과 살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야. 진주란 보석은 영원히 빛나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

그날부터였다. 백합한테 말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나들이 하는 시간도 줄었다. 백합은 흰구름이 지고피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다.

어느날 백합은 바지락을 공격하는 불가사리를 보았다. 이럴 때 자기 몸을 먼저 숨기는 것이 조개들의 습관이었다. 그러나 이날 백합은 달랐다. 뜨거운 가슴에서 치솟아 뿜다 불가사리의 머리통을 물고 늘어졌다. 한참후야 백합은 정신을 차렸다. 눈을 떠보니 늪은 빠고둥이 상처를 꿰매고 있었다.

“넌 아주 훌륭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그런데 이번 일로 모래 한알이 네 심장 깊숙히 박혀버렸다는 걸

알아두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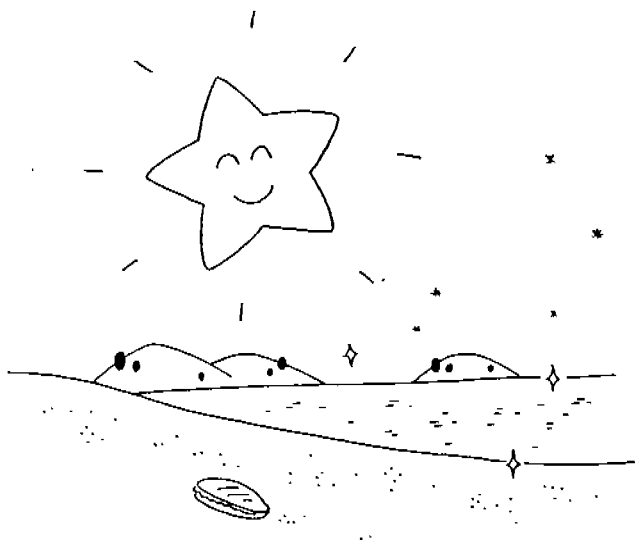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늘이 도우면 진주가 되기도 하지”

백합은 엎드려 울면서 기도 했다.

“저는 죄 많은 조개입니다. 내 기쁨을 나누어 가질 줄 몰랐습니다. 남의 아픔을 덜어줄 줄 몰랐습니다. 내 안의 교만과 질투와 욕심이 악마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물 한 모금, 바람 한 모금의 작은 것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날을 오직 참회하며 살고자 하오니 이 세상을 떠날 때 눈물 한 방울 남기는 것을 허락 하소서.”

자기 몸안에 들어온 하나의 모래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진주를 창조하리란 희망으로 살아가는 백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일깨운다. 진주는 곧 진실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은 고통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 그 고통을 달게 겪는 힘 이야말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한다. 이미 백합의 몸에 진주의 씨앗(모래)이 들어오기 전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싸웠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우리의 상상력은 계속 뻗어간다. 우리 삶 속의 ‘진주’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된다■

미래의 발견

영국의

저술가이며 의학자인 엘리스는 스무살이 될 때까지는 이상하게 큰 머리와 약한 몸을 가진 쓸모 없는 젊은이였다. 그는 뱃사람인 아버지와 함께 오스트리아로 갔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는 다음 행선지인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기후가 맞지 않아 자기 아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 그를 오스트리아에 남겨두었다. 엘리스는 오스트리아의 쓸쓸하고 자그마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까 고민했다. 몸이 약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었던 것이다.

어느날 저녁 그는 누워서 힌튼이라는 사람의 전기와 서간집을 읽었다. 열아홉살의 소년은 힌튼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외과의사이며 철학자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별안간 그는 경충경충 뛰었다. 그 책에는 그가 구하던 답이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은 의사라고 생각했다. 런던으로 돌아와 그는 의대에 입학하고 의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향해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책이 목표를 발견하게 한 것이다.

미국의 화가이며 발명가가 된 모르스도 10살 때 플루타크의 유명한 책 『영웅전』을 읽고 자기도 무엇이든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결의를 가졌다고 한다.

우리는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

손에는 책음, 마음에는 꿈을

지 고민할 때가 많다. 학과 공부를 통해서 자기 적성을 발견하기도 하며 주위의 권유에 따라 자기 장래를 선택하기도 한다.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 목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자기 길을 발견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는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책을 읽어 그 속에서 우리 길을 발견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느낀다. 먼저 풀풀나는 들길을 힘들게 걷다가도 들가에 피어있는 소박한 꽃 한송이를 보면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색깔의 아름다움이나 모양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다. 그 꽃은 생명을 갖고 자기 모습대로 피어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꽃만은 아니다. 멋있는 경치를 보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다 아름다움과 만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우리의 얼굴은 감동으로 환해지는 것이다.

어떤 화가가 예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화가는 먼저 예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그는 적합한 사람을 찾아냈다. 부드러운 눈매와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화가는 그를 모델로 예수의 얼굴을 그렸다.

그 뒤 오랫동안 화가는 이 작품과 씨름했다. 마지막 한 사람 얼굴만 완성하면 되는데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교활하고 악착스러운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가득 지닌 얼굴이어야 했다. 바로 온전 30년에 예수를 팔았

다는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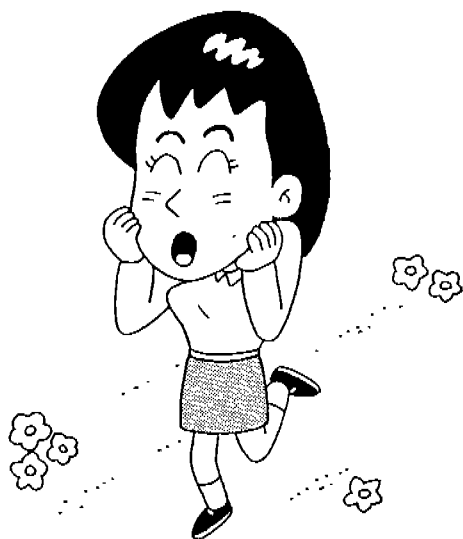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화가는 중단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로 마음 먹었다. 어느날 그는 정말 자기가 마음에 그리던 얼굴을 찾아냈다. 그의 얼굴은 세상의 거친 파도에 시달려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치사스러운 만큼 불쌍했다. 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20년 전 예수의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무엇때문에 그의 얼굴은 추악해진 것일까. 그의 삶이 그를 추악하게 만든 것이다. 만일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하며 살았다면, 이웃의 삶을 배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잃어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고 속이고 남을 괴롭히며 살아왔던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도 슬한 괴로움을 겪었으리라. 이런 것들이 그를 흉악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길은 그리 평탄하지 않다. 늘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때로 자기 마음에 없는 일을 해야할 때도 있을 지 모른다. 젊은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때 우리는 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삶의 지혜를 얻으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책이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

문학작품을 통해 감동을 받을 때 우리 얼굴이 이그러지겠는가. 남의 비극에 가슴아파하는 사람이 흉악한 사기꾼의 얼굴이 될리 있겠는가. 가끔 우리는 못생겼는데도 묘한 매력을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풍기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가 가진 따스한 인간애와 지식이 못생긴 외모를 덮어버린 것을 보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책을 읽으며 감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면 얼굴 근육이 영향을 받아 아름다운 얼굴이 된다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말이지만 믿을만하다. 그럼 우리는 책을 읽으면 얼굴이 아름다워진다는 또 하나의 유익한 점을 발견한 셈이다■

살아나는 어휘를

책을 읽으면 얻게 되는 유익한 점으로 또 무엇을 들 수 있을까? 표현력이 는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표현이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글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말이든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 또는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다. 사람의 언어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나 문장을 이용하여 다양한 말과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바다로 가야겠다/겨울바다 갈매기가/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 끼룩대는 곳/물거품이 바위에 부딪쳐 그리움으로/산산히 부서지는 곳”이라는 시를 쓴다고 하자. 그 시를 쓴 사람은 언젠가 그런 문장을 어디서 그대로 배워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쓴 것이다. 언어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휘와 상상력, 아름다운 문장, 그 안에 담긴 진실한 사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랜 경험과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사는 사람과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표현력이 있겠는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책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을 많이 읽는 사람일 것이다. 책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많은 낱말을 익히게 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표현을 알게 되고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것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독서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와 감자다” 누런 껍질을 벗기면 회고 뽕송한 감자가 나온다. 시골의 맛이 이맛인가! 새삼스럽게 느낀다. 역시 아빠를 줄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감자기 “오늘 저녁 9시에 마루에 모여” 사촌오빠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옆눈으로 알았다는 싸인을 보냈다. 감자를 싹틔 먹고 모두 마루에 모였다. 이번 상대는 참외밭이다. 모두 신발을 신고 나선다. 어쩐지 으스스하다. 특히 대나무 숲을 지날 때면 더욱더. 드디어 도착했다. 그런데 오두막엔 마음대로 가져가란 듯 아무도 없었다. 여자는 치마, 남자는 호주머니에 쓱쓱 집어넣는다. 감자기 저쪽에서 “어떤 놈이야”하고 고함소리가 들렸다.

(『우리교육』 「아이들 소리」에 실린 중2학년의 글에서)

시골 여름의 정취를 잔뜩 느끼게 해주는 글이다. 참외서리 하러 가는 부분은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씩여져 읽는 이들이 조마조마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회고, 뽕송한’이란 어휘도 감칠 맛이 있다. 이렇게 시골에 가서 겪은 일을 재미있게 표현한 사람은 분명 책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책을 읽으며 느꼈던 흥미와 새로운 느낌의 어휘들이 자기 글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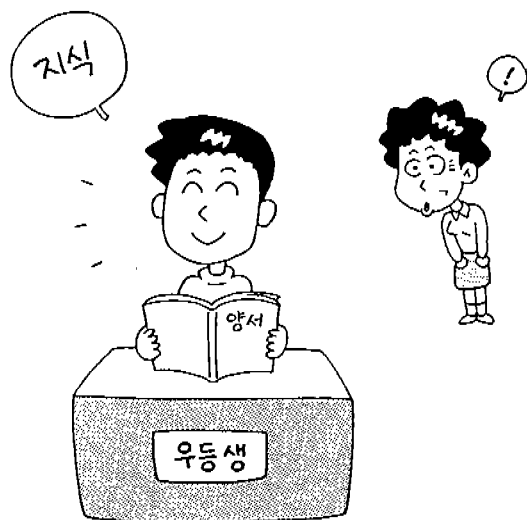
살아있는 지식

책을 읽으면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책을 읽으면 공부에 도움이 되다니 무슨 소리야. 매일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읽어야 할 교과서가 몇 권인데 또 다른 책을 읽어.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군. 책을 읽으면 공부에 방해가 된단 말 이야.” 이 말은 현실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앞으로 그 사람의 정서나 인생관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다. 좋은 책 안에는 삶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을 학과공부와 연결시켜서 독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비록 입시 위주의 공부이긴 하지만 우리 공부에도 책읽기가 보탬이 된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때로는 학과 공부에 직접 보탬이 되는 책을 만나기도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편을 보자.

농부 세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농가에 묵게 되었다. 농부들은 배가 고파서 농가의 아주머니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감자를 삶아 달라고 부탁하고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돌고 말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감자를 삶아 놓고 손님들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감자 바구니를 밥상 위에 올려 놓고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돌아갔다.

이윽고 한 농부가 잠이 깨어 감자를 보고는 동료들이 자고 있으므로 감자를 세어 1/3을 자기 몫으로 먹고 다시 잠이 들었다. 곧이어 또 한사람이 눈을 떴다. 그는 동료 한 사람이 이미 자기 몫을 먹었다는 것을 모른 채 남아있는 감자를 헤아려 그 중 1/3을 먹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후 세번째 농부가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는 남아있는 감자의 1/3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다. 이 때 앞의 두사람이 눈을 떠 보니 바구니에 감자가 8개나 남아 있었다. 이제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주인 아주머니는 바구니에 몇 개의 감자를 담아 놓았을까? 또 농부들은 각자 몇개씩 먹었을까? 이 세사람이 공평하게 감자를 먹으려면 각각 몇개씩을 더 먹어야 하는가?

『이야기 속의 수학세계』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씩 어떻게 되서 감자가 남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은 세 농부가 각각 몇개나 감자를 먹었는지, 공평하게 먹으려면 얼마큼씩 더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가? 이 책은 해답을 금방 보여주지 않는다. 책 몇장을 더 넘겨야 이 해답이 나오는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계산을 해볼 것이다. 자, 계속 답을 읽어보자. 여러분이 풀어 나온 답과 비교해보자.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거꾸로 시작하는 것이다.

세번째 농부는 동료들을 위해 한 사람에 네개씩, 합계 8개의 감자를 남겨 놓았다. 결국 자기 자신은 4개의 감자를 먹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두번째 농부는 동료들을 위해 한 사람에 6개씩, 합계 12개의 감자를 남겨놓고 6개를 먹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첫번째 농부는 동료들을 위해 한사람에 9개씩 합계 18개의 감자를 남겨두고 자신은 9개 먹은 것이 된다.

결국 주인 아주머니는 밥상 위에 27개의 감자를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첫번째 농부는 자기 몫을 전부 먹었으므로 나머지 8개의 감자 중 3개는 두번째 농부의 몫이고 5개는 세번째 농부의 몫이 된다. 이 이야기는 수학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책이다.

이런 걸 읽다보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는 궁금해 한다. 그리고 그 궁금함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 자연히 수학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요즘에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이 많이 나왔다. 또 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큰 이야기를 보자.

철수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배는 기관 고장을 일으켰고,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흘러 갑니다. 철수는 구사일생으로 혼자서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섬에 내려 보니 샘이 하나 있을 뿐, 풀 한 포기 없고 바위뿐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만한 도구나 그 도구를 만들 만한 재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철수가 타고 온 배에 알을 낳는 암탉 두마리, 젖을 짤 수 있는 염소 한마리, 그리고 보리가 두말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 식량으로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합니다. 구조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어느 것을 먼저 먹어야 할까? 제일 오래 견딜 수 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보리를 닭과 염소한테 주고 그놈들이 내는 알과 젖을 먹고 살다가 나중에 잡아먹을까? 아니면 보리를 내가 다 먹기 위해 이놈들을 먼저 잡아 먹을까? 어차피 결과는 같을테니 이런 고민으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먼저 먹을까?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요.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제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 할까요?

(『생물 에세이』에서)

『생물 에세이』라는 책에 실린 글이다. 이 이야기 뒤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설명이 담겨 있다.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

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에너지의 낭비를 막아 그 에너지를 가능한 철수가 소비해야 철수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염소가 풀을 먹을 때 그 풀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몸안에 저장할 수는 없다. 풀을 먹으면서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에너지는 배설하게 된다. 그러니까 염소나 닭은 보리 에너지의 10%도 저장할 수가 없다. 보리는 팬 나중에 먹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럼 닭과 염소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물질대사가 쉽다. 닭과 염소 중 부피에 비해 표면이 넓은 쪽은 닭이다. 닭이 에너지 손실이 많다는 말이 된다. 닭을 먹은 다음 염소를 먹고 그 다음 보리를 먹으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이 생물시간에 배운 생태계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또 궁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읽고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학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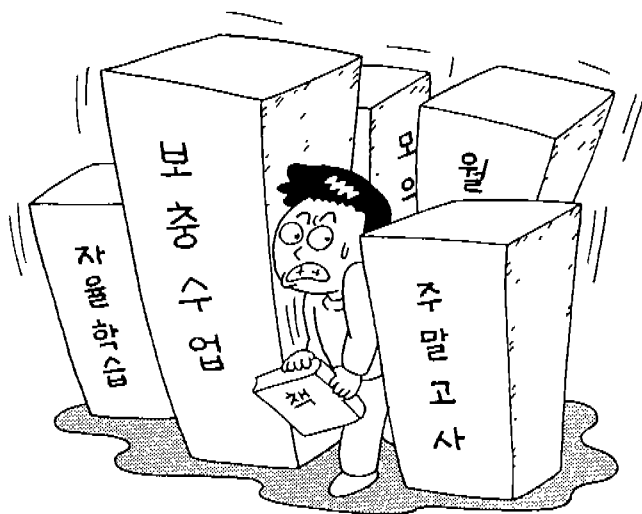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책처럼 학과 공부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책을 읽으면 그것이 바탕에 쌓여 공부에도 도움을 준다. 물론 학교 공부 잘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책 읽으면 공부 언제하나”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마음의 양식

“하루 7시간 수업에 두시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해야지요. 또 학교공부 끝나면 도서관엘 가거나 시험준비를 해야 되니까 도대체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시험만 해도 주말고사, 월례고사, 모의고사 등 시험이 오죽 많아가지요.”

어느 여고생의 말이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듯 우리나라 중고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러다보니 정말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학생들의 글 두편을 보자.

“지금은 8시 50분입니다. 야간 자습을 하다 갑자기 뒤를 돌아 본 저는 경탄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었군.’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겐 더욱 경계심을 가집니다. 나의 성적은 중간입니다. 그러나 난 그 위치도 언제 무너질까 겁이 납니다. 내게 친구로 보이는 애들은 몇 안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적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내 적은 비단 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90만이 넘는 재학생과 재수생들이 모두 앞으로 몇 달 후에 있을 학력고사라는 전쟁에서 나혼자 상대해야 하는 적입니다.”

“저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지난 성적을 보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잠, 음식으로 제 불만을 채웁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는 동안 만큼은 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무척 밍지만…….”

(『십대들의 쪽지』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 성적이 좋아야 대학을 가는데, 성적이 좋아야 취직을 하는데, 성적이 좋아야 부모님께 꾸중을 안듣는데……。 자신을 둘러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쩌다 시간이 나더라도 책을 들여다 보겠는가? 그 많은 교과서를 읽고 있는데.

이와 함께 텔레비전이나 만화, 비디오 같은 대중매체가 또 청소년을 유혹한다. 물론 이런 것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도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 지식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빨려들어간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오히려 청소년들의 사고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본다. 안타깝게도 음란도서나 성인용 주간지, 스포츠 신문까지 우리들을 파고든다.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이런 것 때문에 일그러지기 쉽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딱딱하게 앉아서 책을 읽어요? 재미도 없는 걸. 차라리 오락이나 하겠어요.”

“차분하게 앉아서 독서할 여유가 없답니다.”

“공부해야지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건 어른들이예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청소년들은 점점 책과 멀어진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마음은 굶주려 죽고 만다. 결만 살아 있고 속은 텅빈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흉한가? 그만큼 책읽기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책을 읽는 것일까?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무조건 책읽기를 권해서가 아니다. 역사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또 성실하게 살며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삶과 따로 떼내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책읽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있는 것으로 만든다.

책은 인류가 남긴, 그리고 후손에게 남겨야 할 가장 귀중



한 유산이다. 책 속에는 인류가 수천년 동안을 두고 쌓아온 사색과 체험과 연구와 관찰의 기록이 마치 백화점에 가득 쌓인 물건처럼 전시되어 있다. 이 이상의 보물, 이 이상의 위대한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책만 펴놓으면 우리는 수천년 전에 살던 사람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천재의 학설도 읽을 수 있다.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가운데 책을 읽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그러나 책읽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책 속에는 삶이 들어있다. 옛날에 살던 사람의 삶이나 꾸며낸 사람들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삶도 담겨 있다. 이런 삶을 통해 우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리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낀다.

책읽기는 오락보다 더 재미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 조그마한 일도 지혜롭게 판단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책 속에는 역사가 담겨 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 현실을 반성하고 더 나은 길을 찾게 된다. 책을 읽으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한다. 우리 삶의 진주는 무엇일까? 내가 아름답고 순수하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내 삶의 길은, 내 직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책 속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든다. 책을 읽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긴 틀린 말이다. 폭넓게 지식을 쌓고 생각하는 가운데 얻어진 지식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자, 마치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책읽기의 소중함! 한번 책을 펴보자.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은 우리 삶과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다■

신중한 선택

책을 읽되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아무책이나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좋은 책을 골라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무엇을 읽어야 할까?

이 장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책의 선택 / 57
균형있는 독서 / 61
고전의 가치 / 65
삶의 이야기 / 70
인류의 기록 / 75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 79
미지세계의 탐험 / 84
성공의 밑거름 / 87

책의 선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택에는 기준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할 때 생기는 마음의 혼란, 망설임 등도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책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읽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순간순간 마음이 결정하는데 따라서 책을 선택한다면, 순간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독서나 체계있는 교양을 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읽을 책을 사러 가기 전에 살 책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책방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이 머리를 혼란시키고, 이책저책 뽑아 보다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책을 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책을 구입하려 책방에 가기 전에 미리 정하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적어도 이런 예비 과정을 가지고 선택하는 책은 실수가 없고, 산 뒤에도 후회가 없다.

위와 같은 책의 선택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하여 책을 사고, 독서를 하려는 사람이 독서계획도 없이 책을 읽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책의 선택은 자신의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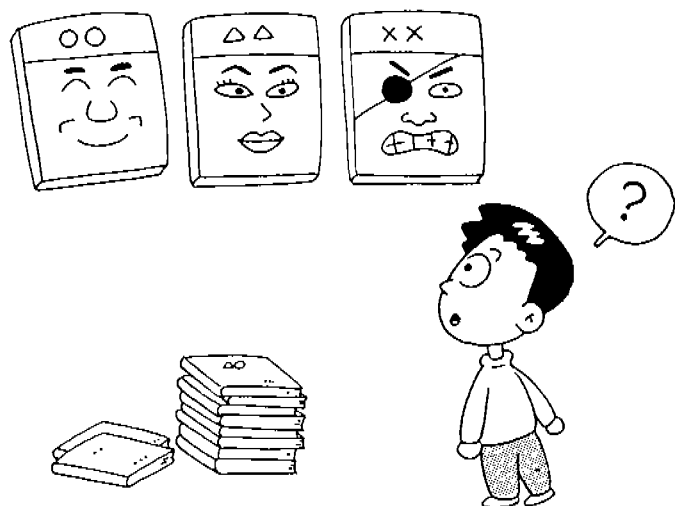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서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한 독서계획이 없이 책을 한권 한권 읽게되면, 체계있는 지식의 습득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중에 자신의 독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다보면 흥미위주의 독서로 빠지기 쉽다.

독서의 계획은 길게 세울수록 좋지만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시기를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독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서 책을 자주 읽는 어른에게 상의하거나, 독서지도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의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책을 선택하면 원하는 책을 바로 선택할 수 있고, 경험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꼭 읽어야 할 좋은 책을 만나게 된다. 또 한가지 덧붙이면 책을 읽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에 독서하는 습관을 익히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독서 습관이다.

책을 읽을 때 독서계획을 세웠다고 억지로 또는 무리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끄는 관심있는 분야의 책부터 읽는 것이 좋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동안 책의 내용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책 읽는 재미가 몸에 붙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서습관이 생기게 된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으면, 계획에 따라 책을 읽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좋은 책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자로 잰듯이, 여기까지는 좋은 책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정도의 책은 좋은 책이고 여기서 벗어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기준은 있다. 이 기준은 개인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기준을 대강 정리해 보면 책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달하려는 것을 저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읽는 이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이 정의는 나름의 기준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이다. ‘좋은 책이 좋은 책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위와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책의 기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좋은 책의 선택은 자신의 독서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책 중에는 고전과 명저를 소개한 것이 있다. ‘한국의 명저’ 또는 ‘세계의 명저’라고 하여 책의 내용, 저자 등을 소개한 것이다. 우리는 이 책들을 통하여 좋은 책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책은 수많은 책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곳에 소개된 것을 통하여 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책의 선택은 자신이 그전까지 쌓아온 독서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선택할 때와 같은 것이다.

나이가 어리고 세상 경험이 적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사람을 몇 번 안 보고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종종 본다. 이것은 바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듯이 책도 마찬가지다.

좋은 책은 소리없이 책방과 도서관의 서고에 꽂혀있다.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선택할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듯이, 독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 좋은 책을 만나고 선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책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꾸준한 독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한 없이 즐겁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좋아서 또 만나듯, 좋은 책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균형있는 독서

우리는 몸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 편식을 하거나 지나친 운동을 하면 신체의 균형이 깨어지기 쉽다.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좋아한다고, 재미있다고 하여 특정 분야의 책만을 읽게 되면 정신과 정서의 고른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한쪽으로 치우친 독서는 균형 잃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장하고 있는 세대일수록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여러
방면의 책을 고루 읽어야, 정신과 정서의 고른 발달을 가져
올 수 있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냐 하는 것은
인류가 이룩한 성과들을 골고루 잘 섭취하여 기초를 튼튼하
게 쌓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마치 집을
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높고 큰 집을 지을 수 있
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소설을 좋아하여 소설만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소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다. 이런 사람과 만나
서 나누는 대화가 몇 번은 즐거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자
기가 읽은 소설의 기준에서 평가함으로 우리는 곧 싫증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
다.

반면 소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타 여러 방면에도 고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즐거울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폭넓은 지
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넓고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신과 정서를 고루 발달시켰
기 때문에 생각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부른다. 교양
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기초교양 이상의 지
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 방면의 책을 고루 읽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가 빠르만큼 쌓이는 지식의 양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 속도에 맞추어 노력해 나가지 않는다면 현대사회에 살면서도 현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쉬운 예로 컴퓨터를 보면,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지 2~3년도 되지 않아서 작년에 나온 컴퓨터는 용량과 능력면에서 구형이 되어가고 있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보급율도 놀라와 컴퓨터를 모르면 ‘컴퓨터 문맹’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컴퓨터에 한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사회가 놀랍게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가져온 지식들은 책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다.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분야도 정보산업의 일부분으로 놀랍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로 새로운 지식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책들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런 책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것이기에 믿을 수 있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기록하였기에 비전문가들도 읽고 이해하기 쉽다. 이런 책들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곳을 분명히 아는 현대인이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던져주는 놀라운 변화와 많은 지식 속에서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분야의 책과 만나야 하는 것이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또다른 이유는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는 계기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특히 성장하는 세대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는 자신의 재능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려는 노력도 많이 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나의 재능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인생이 재능을 찾아가는 과정일런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책과 사람을 드는 경우가 많다.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마음에 들어서, 또는 내용의 한부분이 자신의 호기심을 강하게 끌어서 등으로, 책속에서 인생행로를 찾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가다보면 자신의 마음이나 호기심을 강하게 끄는 부분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다. 이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거기에 자신의 재능이 있다고 믿어도 틀림없을 것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옛말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방면의 책을 고루 읽음으로써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른 영양 섭취와 적당한 운동이 균형있는 몸을 만들 듯 폭넓은 독서는 우리를 조화로운 인격체로 키우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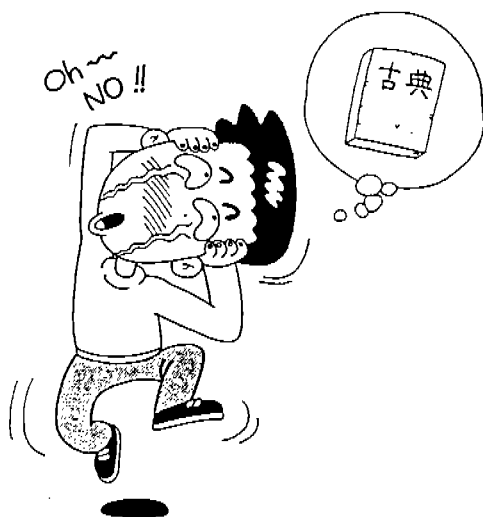
고전의 가치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은 고전을 읽으라고 권한다.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는 상관없이 독서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고전이 제일 먼저 입에 오르내린다. 그래서 고전은 당연히 읽어야 하는 책으로 알고 있고 고전을 읽지는 않았어도 책이름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다. 또 고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읽기도 전에 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고전은 읽혀서 내용이 이해되기 보다는 책이름만이 널리 알려지는 책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름으로 더 유명한 고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전은 오랜 세월을 두고 온갖 시험을 통과한 책이다. 요사이 신문에 실린 책광고를 보면, 온갖 아름다운 수식어로 책을 미화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책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대작이니 명작이니 하는 말도 모자라서 이 시대 마지막 걸작이라고 선전을 한다. 거기에 덧붙여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양 독자를 유혹하고, 열등감까지 자극하여 책을 사도록 만든다.

책방에서도 이에 장단을 맞추어 베스트 셀러 코너를 만들고, 최근에 선전하는 책들을 수북히 쌓아 놓았다. 일정한 기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간이 지난 뒤 책방의 베스트 셀러 코너에 가보면 지난번에 쌓아 놓고 팔던 책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베스트 셀러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책들은 책방에서 찾기 힘들어진다. 책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이처럼 책에도 생명과 나이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 이를 서평이라고 하며 글로 쓰여지기도 하고 주위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책은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 가치가 인정되면 살아 남아서 계속 읽히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라져 없어진다. 누구도 그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책의 시험이다.

고전은 여기에서 살아남아 오늘에까지 전해오고 있는 관록이 붙은 책이다. 지금도 책방에 가면 베스트 셀러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하지만, 서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서 끊임없이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이 있다. 이것이 고전인 것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평론가와 독자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글과 대화에서 수없이 떠올렸던 책이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듯 고전은 오랜 세월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은 책이면서 인류 사고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큰 강물의 시작은 몇 개의 작은 지류에서 시작된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도 그 근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몇 개의 근원에서 만날 수 있다.

동양철학은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을 근원으로 하고, 서양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리스-로마 사상을 근원으로 하여 현대의 다양한 철학사상을 잉태시켰다. 현재는 수많은 종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독교와 불교도 그 근원은 예수와 석가모니에서 시작된 것이다. 과학적 사고도 위와 같은 과정속에서 현대의 세분화된 과학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경우는 단군신화로 대표되는 샤머니즘에서 불교, 유교와 만나고 그것이 서구 근대 사상과 만나서 오늘의 우리 사고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사고체계 속에는 위의 갖가지 요소들이 섞여있는 것이다. 이 다양한 영향속에서 하나하나의 가닥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을 이루고 있는 사고의 근원을 찾아갈 때 우리는 위에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서 예로든 사상가, 철학자, 종교 창시자 등과 만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있는 ‘지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게 된다. 고전을 읽는 것은 이런 근원과의 만남이다. 그러기에 고전의 샘은 마르지 않고 늘 신선하다. 그리고 읽는 이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시대를 넘어서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 사고의 근원인 고전을 읽는 것은 인간이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고전에는 재미와 지혜가 담겨있다. 고전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고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솝우화』나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재미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과 민담을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도 없다. 서양의 고전이든 우리의 전설과 민담이든 관계없이 모든 이야기는 재미있게 진행되고 반복해 들어도 흥미롭다. 그리고 그 재미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이솝이 전해주는 지혜, 우리의 오누이 남매가 들려주는 지혜는 고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것이다. 고전 속에 담겨있는 지혜는 경구나 훈계와는 달리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있기에 우리의 기억에 오래남고 그 생명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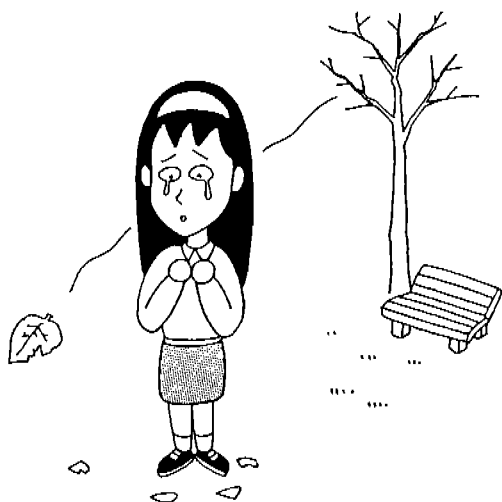
끝으로 오래된 책만이 고전은 아니다. 현대에 쓰여진 책 중에서도 가치가 인정되어 고전의 위치에 있는 책들이 있다. 이를 ‘현대의 고전’이라고 부른다. 이 책들은 고전에 못지않은 지식과 지혜가 담겨있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오래된 책에서만 고전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대의 고전도 가까이 하여 현대가 낳은 훌륭한 사상과 만나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렇듯 넓은 의미에서 고전이라고 불러주는 책은 그 가치가 인정된 좋은 책이다. 우리가 고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좋은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다.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삶의 이야기

우리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책은 문학작품이다. 독서에 관한 문의를 했을 때 먼저 추천하는 책이 문학이고, 책방이나 도서관의 장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학이다. 쉽게 만날 수 있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많이 호소하기에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많이 읽히고, 많은 영향을 준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의 슬픔』을 읽고 젊은이들이 자살을 시도했듯이, 사춘기에 자신의 인생 행로를 정할 때 소설의 주인공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문학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시의 세계로 들어가자. 시는 감정과 정서로 다가온다. 절제된 시어로 표현된 한편의 시는 감정과 정서로 다가와 우리를 시인이 노래한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이별, 사랑, 자연, 세월... 등 시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이것들이 그대로 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소재들이 시인의 상상의 세계와 만나고 절제된 시어로 표현되었을 때 시가 되는 것이다. 지구 위에 수많은 이별이 있지만 시인의 정서 또는 상상의 세계와 만난 이별만이 애절하고 슬픈 노래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는다. 그외의 모든 소재들도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렇듯 시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와서 정서를 순화시켜 준다.

시는 언어로 표현되기에 시인은 자기의 모국어를 잘 다듬고 세련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 시인은 뛰어난 언어감각을 지니고 있다. 시를 그 나라 언어의 정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詩)라는 한자어는 언어의 사원(言+寺)이라는 뜻으로 시에서 언어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고 또 외운다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언어를 세련되게 사용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를 어렵다고 멀리한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소설이나 수필처럼 재미있게 슬슬 읽히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시를 멀리한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시에서 사용하는 압축된 시어와 상징, 은유 등의 비유가 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어와 비유 등에 담긴 뜻을 실타래를 풀듯이 음미해 간다면, 거기에 담긴 다양한 의미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시의 세계와 만나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쉽게 되지는 않는다. 인내를 가지고 한편 한편의 시를 꼼꼼히 읽어가면 그전에는 몰랐던 놀라운 시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시를 이해하는 길은 오직 시를 열심히 읽는 길 뿐이다.

다음은 소설의 세계로 들어가자. 소설을 읽는 재미에 밤을 지새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다. 또 문학하면 소설을 떠올릴 정도로 소설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문학을 대표하는 형식이 되었다. 소설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따라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재미는 다른 문학형식에서는 얻기 어렵다. 이 재미때문에 소설을 흥미로운 읽을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를 읽을 때 긴장의 심분의 일도 가지지 않고 읽는다. 다 읽고 나서도 단순히 재미있었다든지 주인공이 멋지다 정도의 감상만을 가지는데, 이런 태도는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을 그냥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가지 인간의 모습이 소설 속에 있다. 소설의 인물을 통하여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만나게 된다. 탐욕, 질투, 미움, 사랑, 간교, 이기심 등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감정과 만나는 것이 소설이다.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인간과 만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소설 속의 사건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인생에서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 등 다양한 인생행로가 전개되고 있다. 이로써 소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하며 인생에 대하여 폭넓은 생각을 하게 한다.

또 소설은 소설을 탄생시킨 시대와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사진처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설가의 상상을 통하여 반영되는 것이다. 역사소설을 읽으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된다. 이것은 작가가 상상을 통하여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여 우리 앞에 전개시켰기 때문이다. 역사책에서 얻을 수 없는 현장감이 있어 읽는 이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준다.

이어서 소설의 종류에 대하여 얘기하기로 한다. 우선 소설의 종류는 다양하다. 순수소설과 대중소설로 나눌 수 있고, 그외에 역사소설, 추리소설, 공상과학소설 등 그 종류는 수십가지에 이른다. 소설 형식의 특성상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에 재미나 흥미 본위로 사건을 진행시켜 독자의 요구에 맞추려는 소설들이 있다. 대중소설이라는 것이다. 재미로 읽을 수는 있지만, 소설의 정수는 아니다. 소설을 처음 만나고 소설문학의 참맛을 알려는 사람은 순수소설을 읽어 자신의 감상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킨 뒤에 다른 종류의 소설을 읽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재미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앞에서 말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이다.

다음에 수필에 대하여 몇 마디 하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는 달리 수필은 인생과 사회 그리고 자연 등을 객관적인 자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쓴 사색과 고뇌의 결과이다. 수필은 시가 주는 긴장이나 소설의 구성 같은 것이 없다. 일정한 형식없이 자신이 생각한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수필이다.

수필은 사색의 결과이기에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다. 수필의 시조인 몽테뉴 『수상록』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변의 수필들을 보면 잡다한 신변잡기 등을 나열하는 식의 수필이 많다. 수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수필은 가벼운 것에서 깊이 있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거기에는 사색과 고뇌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수필을 읽는 것은 이같은 사색과 고뇌의 길을 따라가면서 인생과 사회 그리고 자연 등에 대한 생각을 깊고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 여가의 소일거리로 생각하여 수필을 읽거나 쓴다면 수필이 주는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느끼지 못할 것이다. 수필을 읽을 때는 최근에 나온 수필보다는 적어도 몇년 전에 나온 수필을 읽는 것이 좋다. 이 기간 동안 좋지 않은 수필은 사라졌을 것이고, 읽을 가치가 있는 수필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하여 만나는 수필은 한적한 오솔길을 걸으며 애기를 나누는 말벗과 같다■

인류의 기록

역사는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의 기록이다. 지구 위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삶의 기록을 남겼다. 동굴에, 벽에, 돌이나 토기에 그리고 인지가 발달한 뒤에는 종이 위에 기록을 남겼다. 이것을 ‘역사’라고 부른다.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먼 옛날 조상들이 살아온 과정에서부터 가까운 과거의 삶까지 알 수 있다. 때론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까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역사만 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후기, 양반관료가 부패하고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개혁 요구가 있었다. 이것이 동학혁명이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일본군을 끌어 들여 혁명을 진압함으로써 동학과 농민이 요구한 근대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수 국민이 요구한 개혁이 진압되면서 일본을 포함한 외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부정과 부패로 몰락할대로 몰락한 조선왕조는 자주적 힘으로 사회개혁을 할 수 없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다. 끝내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비운의 역사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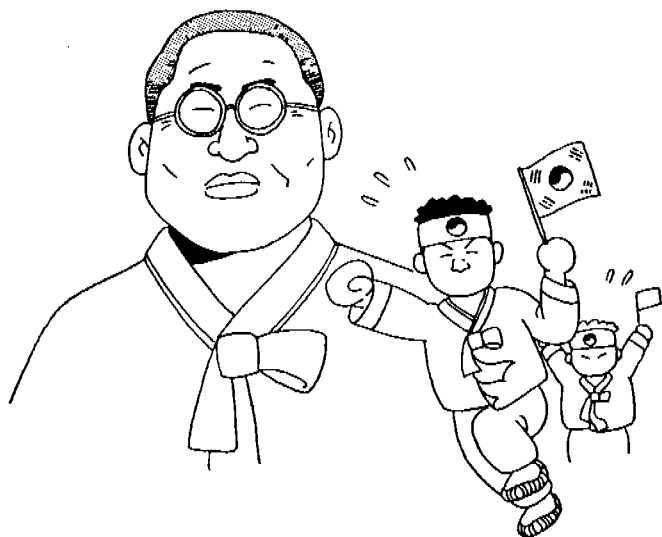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우리는 조선후기의 역사에서 억압과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힘을 탄압하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부당한 통치가 일제의 식민지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중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서양의 문물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이게 하고,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조선왕조는 이를 무시하고 탄압하였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근대적 개혁의 길과는 더욱 멀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근대적 개혁을 하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산업화를 시도하고 결국에는 힘을 길러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빨리 깨닫고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어 조선사회를 개혁했다면, 역사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증명해 준 대표적인 일례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근대 역사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세계의 흐름에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과 같이 세계가 좁아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난 즉시 우리에게 전해진다. 사건뿐만 아니라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즉시 우리의 안방에 전해진다. 내가 어느나라 사람인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 자신을, 우리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최근 세계역사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의 한가운데 서있는 것이다. 지금 급변하는 세계역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 갈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조선후기의 역사적 오류를 되풀이 할 것이다. 이 오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의 고난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진행되는 세계역사의 흐름을 바로 알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이다. 과거는 그냥 지나가 버린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있는 과거인 것이다. 이렇듯 역사는 과거라는 거울로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에 만나는 역할을 하기에, 옛 성현은 역사를 아는 민족은 흥하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였다. 지난날 잘못된 우리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가 역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గా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철학책을 읽어라’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파분하고 지루한 책,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 이것이 철학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모든 철학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자연, 인간, 세상 등에 대하여 철학자 나름의 체계를 갖추어 해석하다보면 어렵게 되기도 하지만, 쉬운 대화 형식으로 쓰여진 철학책도 있다.

철학책은 어느 정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읽어야 할 책이다.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읽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온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은 여기에 맞는 말이다. 인내를 가지고 철학책을 읽는다면, 자연, 세계, 인간, 삶 등에 대한 논리적 세계와 만날 수 있다. 철학은 논리적 사고의 산물이기 때문에 읽는 이에게 논리적 사고를 선물한다.

철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삼라만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우리의 사고 범위를 넓혀준다. 간혹 우리가 갖기 쉬운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넓고 깊은 세계와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은 ‘지혜 또는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철학 입문서를 통하여 철학의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입문서를 읽고 철학에 접근하여 어느정도 철학에 대한 두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움이 사라졌다면, 그 다음에 철학사를 읽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철학자를 찾아 그를 통하여 진정한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의 철학자를 차례로 만나면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 또는 다양한 생각과 만날 수 있다. 이런 만남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제 종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종교를 통하여 어떤 세계와 만날 수 있을까? 종교의 세계는 성경이나 불경과 같은 경전 또는 교회와 절 등의 사원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 위의 것들을 통하여 만나는 종교는 절대적이고 엄숙한 세계이다. 이 절대의 세계가 지향하는 교리는 각 종교의 경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들 경전은 종교의 창시자가 살아

서 행한 언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중심으로 종교와의 만남을 시도해 보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가던 길에 나이 어린 승려가 끊여준 버섯죽을 먹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큰 일이 일어났다고 걱정을 하였고, 나이 어린 승려를 불러서 크게 꾸지람을 하였다. 네가 독이 있는 버섯으로 죽을 끊여드렸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거의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그 죄가 한없이 크다고 탓하였다. 그러자 어린 승려는 자신이 정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죽을 결심을 하고 선생님이 원기를 회복하시면 얼굴이나 뵈고 죽으려고 하였다. 기운을 차린 석가모니는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 달라고 했다. 죽기를 결심한 어린 승려는 선생님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선생님께 들어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석가모니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죽지말고 도에 정진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라.” 어린 승려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라고 대답하였다. 뒤에 그는 큰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석가모니의 자비로운 마음이 한 생명을 구하고, 그를 큰스님의 경지까지 인도한 것이다.

불교가 추구하는 자비의 세계가 잘 나타난 일화이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자비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화는 종교가 추구하는 또는 추구하고자하는 세계의 일면을 창시자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일화를 하나 들어보자. 양떼를 데리고 들관에 나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갔던 목자가 저녁이 되어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양들을 모았다. 목자는 양들을 세어보았다. 한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목자는 나머지 양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섰다. 그리고 어린양을 찾았다. 그는 기쁜 마음에 어린양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에서 목자는 예수이고 양들은 우리들이며 어린양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산에 해는 지고 사방은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양들을 습격할 위험이 있다. 한마리의 양을 구하려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리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비교적 안전한 곳에 모아놓고 어린양을 찾아간 것이다.

이 비유는 어린양의 구원과 목자의 사랑으로 압축될 수 있다. 어린양 하나, 즉 작은 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모습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예수의 말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종교가 추구하는 사랑의 세계가 주는 깊이와 넓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두 종교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는 종교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의 세계와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사랑하더라도 대충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철저하게, 자비를 베풀더라도 한없고 끝이 없게 하는 세계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읽고, 이런 세계와 만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나의 말은 진실된 것이고, 행동에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 등을.

이것은 어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와 만나는 이유이며 경전을 읽는 까닭이다. 종교

또는 경전은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늘 우리들 주변에 두고 읽기에 충분하다.

철학은 합리적인 논리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의 마음을 차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 반면 종교는 철학보다는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두 방면의 책을 조화롭게 읽어 나가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미지세계의 탐험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기나긴 차량의 물결이 고속도로와 국도를 뒤덮는다. 이같이 엄청난 차량의 행렬은 자동차가 대중화되었음을 뜻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귀중품에 속하던 자동차가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이같은 현상은 자동차의 대량 생산으로 자동차의 값이 예전에 비하여 훨씬 싸진 결과이다. 차량의 대량생산은 과학기술의 발달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차량의 홍수는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일컬어 ‘과학기술혁명시대’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 ‘우리별 1호’를 발사하여 우리도 본격적인 우주과학시대를 열었다.

인간의 과학기술 발달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단계는 1848년 증기기관을 생산해 낸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제까지 생산의 동력을 인간의 힘, 말, 소 등에 의지하던 것에서 증기기관에 의해서 기계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둘째는 1890년 이래로 전기와 연소모터를 사용하는 기계

생산시대이다. 전단계보다 힘이나 능률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연료를 태워 움직이는 자동차, 비행기 등이 발명되는 시기이다.

세제는 1940년 이래로 전자와 원자력기구의 기계생산시대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그 용도나 크기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작아져서, 지금은 크기가 아주 작은 극소전자가 생산되어 극소전자의 시대라고 할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 컴퓨터가 오늘날처럼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작아진 것은 이 극소전자 덕분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공장의 자동화, 로봇트를 이용한 제품 생산에도 이것이 사용되어 생산력 향상과 기술의 발달에 놀라운 기여를 하였다. 앞에서 예로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대중화된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런 현상은 자동차나 컴퓨터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발달의 속도가 과거에 비하여 몹시 빠르기 때문에 현대를 과학기술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제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과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바로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달로 과거에 이룩하지 못한 엄청난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간의 감축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주 5일 근무, 또는 하루 6~7시간 정도의 노동만으로도 과거의 생산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가의 활동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먼 후일의 얘기는 아니다.

위에서 지적한 기술발달로 인하여 지식의 축적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도 현대의 특징이다. 현재 1년동안의 축적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된 지식의 양은 그 전에 축전된 양을 능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과학의 전문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 되듯이,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과학문맹’이 되어가는 것이다. 발전하여 앞서가는 과학을 뒤에서 바라다 보고, 그것이 주는 편리한 도구들을 사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과학 지식을 습득하여 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의 각 분야들 전자공학, 천문학, 우주공학, 유전공학 등등 많은 분야의 과학 지식에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과학의 문맹에서 벗어나고 과학발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과학책을 통하여 새로운 과학 지식을 하나하나 습득하는 과정은 미지의 신대륙을 탐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에 비길만한 것이다■

성공의 밑거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아침이 되면 밤새 들어온 정보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변하는 양만큼 정보도 많아진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하루면 강산이 변하고, 어제의 일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

급변하는 세계, 쏟아지는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가거나 모두 읽을 수는 없다. 할 일이 많은 현대사회에 사는 현대인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을 수집 또는 취재하고 정리하여 전달해 주는 신문, 잡지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기 마련인 현대인들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세계의 흐름을 알고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신문과 잡지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은 밤새 들어온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대표적인 정보매체이다. 신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등을 만난다. 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문화 등 각 방면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도 함께 얻는다. 며칠만 신문을 못 보아도 세상에 어둡고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신문은 신문사로 들어온 각종 사건, 사고 또는 정보를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독자에게 전달해 준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등 신문의 지면은 다양하고, 다양한 만큼 많은 소식이 실려있다. 신문의 각 지면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 세계의 흐름과 새로운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은 그만큼 세계와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가까이 만나는 것이다.

신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과 논설이다. 사실과 논설은 신문사의 주의와 주장을 펴는 곳이다. 각 신문사는 사실과 논설을 통하여 신문사의 입장을 밝히고, 독자에게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준다.

또 사실과 논설은 이에 동조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압력을 넣는 작용도 한다. 그래서 신문사의 사실과 논설의 방향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국민의 여론을 사실과 논설에 반영하여 사회의 잘못을 바로 잡는 역할도 한다. 우리가 신문에서 사실이나 논설을 읽는 것은 이같은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하면 아침, 저녁으로 오는 종합일간지가 신문을 대표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신문도 세분화되고 있다. 먼저 각 분야별로 나누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여 연예 방면의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 신문’,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 소식과 흐름을 전해주는 ‘경제신문’이 있고, 여기에 여성들의 권익옹호와 신분 상승을 목표로 하여 여성계 소식을 전하는 ‘여성신문’도 있다. 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지녔던 공동체 정신이 사회의 발달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지역신문’이 간행되고 있다. 이런 신문들은 종합일간지가 채 담아 내지 못하는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채워주고, 신문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이렇듯 신문은 세계, 나라 안밖의 소식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또는 지역별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중요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잡지는 신문에 비하면 정보의 전달 속도가 떨어진다. 이는 대부분의 잡지가 월간으로 간행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면에서는 신문에 뒤지지만 사건, 사고 또는 정보 등의 세분화와 깊이있는 분석 등에는 신문이 잡지를 따르지 못한다.

잡지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보다 넓고 세밀한 정보를 얻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을 수 있는 매체다. 잡지의 이런 특성이 잡지의 종류를 신문보다 다양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잡지로는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을 깊이 있게 분석·정리하여 종합한 시사종합잡지가 있고, 그다음은 분야별로 나눌 수 있다.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작품과 문학계 소식을 전하는 문학 또는 문예잡지가 있다. 예술 분야에는 음악, 미술 등의 잡지가 있고, 그외에 스포츠, 오디오, 바둑, 등산, 낚시 등 분야의 잡지가 있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잡지도 여러 종류가 있다. 많은 종류의 잡지 중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알 수 있다.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관심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자신을 키워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신문을 통하여 그날 그날의 소식과 정보를 얻고, 잡지를 통해서는 자신의 관심분야에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계속 얻어 간다면, 현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바른 몸가짐 바른 마음가짐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에 좋은 책을 골라 손에 들었다. 그 다음에는 그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떠오른다. 책을 읽을때는 읽는 목적과 글의 종류 등에 따라 독서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이 장을 통해 효율적이고 올바른 독서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바른 마음가짐 / 93
바른 몸가짐 / 95
마음에 좋은 약 / 97
깊이 널리 아는 독서 / 99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 / 102
글의 종류에 따른 독서 / 105
독후감은 이렇게 /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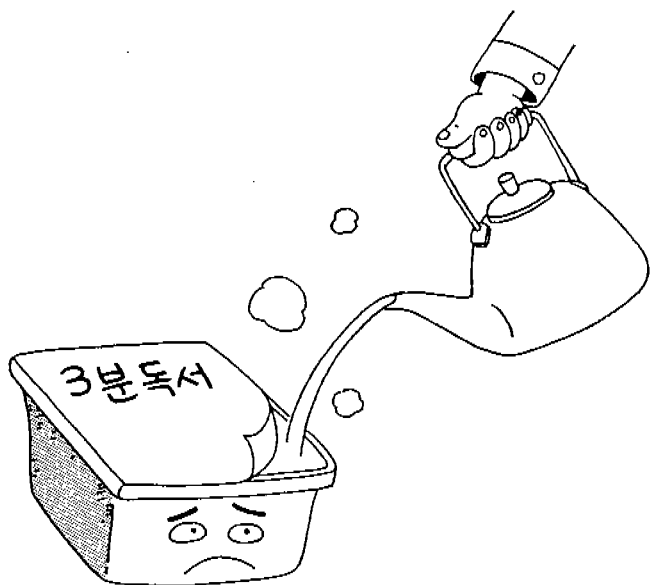
바른 마음가짐

우선 책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버릇부터 고쳐보기로 하자. 우리들은 독서할 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재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뽑아 읽기 버릇, 대충대충 내용만을 파악하는 수박 겉핥기 버릇, 한번 읽고 나면 찬찬히 음미해 보지 않고 던져 버리기 버릇 등등. 사실 입시 현실 속에서 어쩌다 큰 맘 먹고 책을 잡았지만, 그 책에 몰입하기보다는 단지 교과서 밖의 가벼운 외출 정도로 여기는 데서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책이란 마치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다. 책이란 작가가 오랜 경험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피나는 노력 끝에 만들어 낸 근사한 요리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들은 이 요리를 후루룩 단숨에 해치우지 말고 찬찬히 맛을 음미하며 즐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사실 책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나 TV프로와는 달라서 현란한 색채도 음악도 없다. 그저 하얀 지면에 깨알 같은 글씨만이 빼곡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만화나 TV에서 보지 못한 또다른 감동과 무게 나가는 삶의 진실이 담겨있다. 그리고 만화나 TV는 우리의 상상력을 화면 앞에 가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뒤 두려고 하지만, 책은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무한대로 넓혀 준다.

독서란 그 책을 쓴 사람의 의식세계와 인생관, 정서 등과 만나는 뜻깊은 작업이다. 우리는 진지한 자세로 책 속의 한 인간을 만나 대화하고, 그의 창조적 내면을 들여다 보며, 이를 통해 나의 삶을 풍부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바른 몸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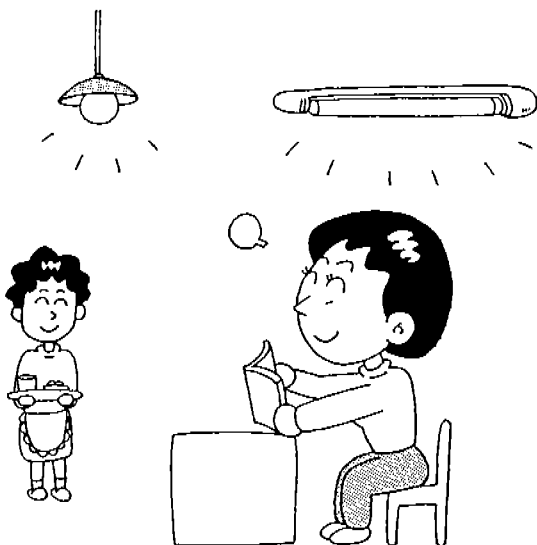
우리가 책을 읽을 때의 자세를 보면 고쳐야 할 점이 많다. 엎드려서 읽는 사람, 누워서 보는 사람, 책상에 앉았으나 머리를 책상에 얹고 보는 사람, 다리나 손을 건들건들 떨면서 책을 보는 사람, 심지어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 놓고 악을 쓰듯이 노래까지 불러가며 책을 읽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불편한 자세로는 피로가 쉬 느껴질 뿐만 아니라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집중력도 떨어져서 글의 내용이 머리 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또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고뇌하고 힘들었던 작가의 노력에 접근하여 얻게 되는 독서의 참맛도 느끼기 어렵다. 작가와 대화하듯 책을 읽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서의 시작에서부터 바르게 책을 읽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자,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꼴꼴이 편 다음,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에 몰두해 보기로 하자. 이 때 책은 너무 눈 앞에 바짝 대고 읽지 말고 팔길이만큼 간격을 두고 읽어야 한다. 너무 가까워서 책을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책을 읽을 때 불의 밝기가 적절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건물이나 지하철, 버스 등이 지나치게 어두워 책을 읽기에는 부적절하다. 교실의 불빛도 좀 더 밝아야 한다. 그러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불빛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할 때, 방을 어둡게 하고 반사되지 않는 전등으로 조명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이 잘 가는 독서실도 창을 막아 캄캄한 실내에 책상만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외부상황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눈이 쉽게 피로해져 책을 오래 볼 수 없고, 시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조명은 자연광선에 가까운 백열등과 인공광선인 형광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 두가지가 서로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눈이 부시지 않고 부드러운 조명에서 기분 좋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마음에 품은 악

이제 자세와 마음가짐이 준비되었으면 책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야 할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여행에 앞서 두마디 잔소리를 덧붙이고 싶다.

첫째, 편식하지 말 것. 책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재미있기도 하지만 무척 지루하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미있는 책만 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기가 맛있다고 고기만 먹고 야채는 입에도 안 대면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해서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것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골고루 읽는 것이 우리 정신의 균형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라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 보면, 관심이 없었던 다른 분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관점과 안목도 훨씬 넓어질 것이다.

둘째, 책을 손에 잡은 이상 끝장을 낼 것. 앞부분만 보고 미리 책의 내용을 판단하여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내팽개치는 일이 종종 있다. 이것은 동굴 깊은 안 쪽에 금, 은, 보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줄도 모르고, 입구가 어두침침하다고 지레 겁을 먹어 포기해 버리는 일과 같다.

사실 처음부터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흥미롭게 쓰여진 책도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중간부터 끝맛인 경우가 많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그러므로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책과 친숙해질 수 있다. 우리 독심을 가지고 시작해 보자. 마침내, 드디어 끝까지 읽겠다고.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평생 변치않고 유익하며 친절한 벗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다. ‘책’이라는 마음 변하지 않는 든든한 벗을■

깊이 널리 아는 독서

이번에는

진짜 책을 읽어 보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다. 그 책들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전문서적, 교양서적, 취미서적, 사전류 등. 그 많은 책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읽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소설책을 백과사전을 보듯이, 컴퓨터 전문서적을 시집 보듯이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른 독서방법이 효과적이고, 또한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독서방법이 달라져야만 한다.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함인지, 교양을 얻기 위함인지, 또는 취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인지 등 목적에 따라 다른 독서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책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독서방법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독(精讀)이 있다. 전문서적을 읽을 때처럼 깊고 자세히 책을 읽는 방법으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해 내야 할 경우의 독서방법이다. 우리가 깊이 있고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교과서를 찬찬히 한자도 빠짐없이 모조리 읽어 가는 것은 정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둘째, 다독(多讀)이 있다. 견문을 넓히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면 많은 서적을 접해야 한다. 훌륭한 작가들의 어렸을 때의 독서 경험을 들어 보면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뛰어난 표현력, 깊은 사고력은 바로 어린 시절에 많은 책을 읽은 덕분이다. 다양하고 많은 책을 읽는 독서의 방법인 ‘다독’이 청소년 시절의 여려분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특히 청소년기처럼 지적 호기심이 왕성할 때에는 정독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는 다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통독이 있다. 소설이나 수필 등을 읽을 때, 자세히 읽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 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통독이다. 잡지나 신문을 포함한 교양이나 정보의 파악을 위해서 읽을 경우에 필요한 방법이다.

넷째, 발췌독(跋萃讀)이 있다. 이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책에서 뽑아 읽는 방법이다. 백과사전이나, 취미서적 등을 읽을 때 쓰는 방법이다.

이상의 독서방법들은 장단점이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독의 경우 책 한 권을 잘 읽을 수는 있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서양 속담처럼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다독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많이 읽어서 풍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으나 속속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전체 숲은 아는데 나무 그루그루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우리는 정독과 다독을 결합해야 한다. ‘깊이 널리 아

는 독서' 이것이 바람직한 독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잠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속독'은 빨리 읽을 수는 있겠으나 내용 파악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할 방법이 아니다. 속독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진지한 독서를 통해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독서방법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독서는 책을 사이에 두고 독자가 작가와 끊임없는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독자는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을 읽기 전에, ‘왜 제목이 그럴까?’하고 궁리해 보기도 하고, 제목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작품을 읽으면서는 작가가 깔아 둔 복선과 여러가지 심미적 장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소설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독서가 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이다. 단지 글자 뜻만을 파악할 목적으로 책을 읽거나, 줄거리만을 간추려내는데 급급해 한다면 우리는 그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독서의 과정을 나누어 보면, 글자의 뜻만을 파악하는 판독의 단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해의 단계, 글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해석의 단계, 마지막으로 해석된 내용에 느낌과 감상을 보이는 반응의 단계가 있다. 판독, 이해, 해석에 이어서 반응의 과정까지를 모두 거쳐야 하나의 독서과정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책을 읽은 사람은 읽은 책에 대해 깊은 인상을 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을 읽었다면 ‘판

독'을 한 것이다. 백짓장을 혼자서 드는 것보다 둘이서 드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해'를 한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쉬운 일도 함께 돕는 것이 좋다고 받아들였다면 '해석'을 한 것이고, 나도 앞으로 매사에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반응의 단계까지 보인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줄을 쳐 가며 읽는 것도 내용파악에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때 무조건 가리지 않고 밑줄을 그어가며 읽기도 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볼 때 책 읽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디가 주제문이 있는 곳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이다. 밑줄이나 그때 그때의 메모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각하는 부분이나 깊은 인상이 남은 부분을 적절히 지시해 들으로써 다음에 책을 읽을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서적의 경우 각 단락마다 책의 여백에 짤막하게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 것도 효과적인 독서라고 할 수 있다.

참, 꼭 충고하고 싶은 것은 사전을 늘 가까이 두고 책을 읽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가방에 영어사전 하나 정도는 필수로 넣고 다니면서도 국어사전은 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말인데 뭐, 다 읽을 줄 안단 말이야”하는 우쭐함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말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읽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어선생님들께서도 늘 국어사전을 옆에 두고 모르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찾아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말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사전이 많도록 찾는 습관을 몸에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휘력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이해력도 향상될 것이다■

글의 종류에 따른 독서

앞에서

읽는 목적과 책의 종류에 따른 정독, 통독, 다독, 발췌독 등 여러가지 독서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글의 종류에 따라서도 독서의 방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밥그릇에는 밥을, 국그릇에는 국을, 접시에는 반찬을, 술잔에는 술을 담아야 구색이 갖추어지듯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이, 글도 다양한 장르로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적당한 독서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문학과 설명문, 논설문 등의 실용문을 대할 때 독서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틀려지게 된다. 각각의 그릇에 맞추어 음식이 담기듯 적당한 태도를 갖추어야 글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적당한 독서의 태도를 통해 해당 장르의 특성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1) 시

우리들은 여러 문학장르 중에서도 시를 제일 어렵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어가 일상적인 언어의 뜻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유나 상징이 많은 시를 보면 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기 일쑤이다.

시는 여러 가지 사상과 감정을 운율있는 언어로 압축시켜 표현하는 문학이다.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뜻 그대로 시를 해석하고 감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장미’라는 시어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무조건 사전에 나온 ‘장미과의 낙엽관목. 관상용 식물로서 품종이 많고 잎은 깃 모양의 겹잎이며 줄기에는 가시가 있음’이라는 설명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시인의 상상력에 의하여 ‘사랑’, ‘정열’, ‘미인’, ‘이별’, ‘죽음’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를 읽을 때에는 그 시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전체적인 시의 문맥을 고려하여 반응해야만 한다.

한편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내용만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각 문학장르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을 충분히 감상해야 한다. 시의 가장 큰 형식상 특징은 운율(리듬)이다. 운율은 언어의 교묘한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를 낭송하면서 읽는다면 그 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에는 이미지가 재현되어 있다. 이미지란 마음 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구절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비이 뱃종 뱃중’에는 새소리의 청각적 이미지가, ‘향기로운 님’에는 후각적 이미지가,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에는 촉각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그 이미지들을 모두 떠올려서 마치 생생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맡고, 맛보는 것처럼 느낀다면 더욱 실감있게 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시의 화자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즉, 여성적이냐, 남성적이냐, 예언자적이냐, 선비적이냐 등에 관심을 기울여서 읽는다면 더욱 좋은 감상 방법이 될 것이다.

(2) 소 설

소설을 읽을 때에는 우선 인물의 성격이 변모해 나가는지 아닌지, 개성적인지 전형적인지,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배경은 소설 속에 나타난 현실로서 인물이 살아가는 중요한 시공간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인지, 일제시대인지, 농촌인지, 도시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배경에 따라 인물의 고민도 달라지고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주제도 변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시와 달라서 산문으로 쓰여지며, 서술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형식상의 특성이 있다. 소설은 우리 삶을 소재로 삼아 있을 법한 일을 허구로 꾸며 나간다. 그리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낱말이 형상적으로 그려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즉 인물의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여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에는 이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주의해야 한다. 인물, 사건, 배경, 문체, 시점, 주제 등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우러지는지를 잘 살펴야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설은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래서 그 갈등을 알아내고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소설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이 다루어지는데,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회, 인간 대 자연, 인간 내부의 갈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갈등의 기본 구조와 변모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 사실, 주제란 작가가 작품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독자가 작품을 읽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찾아 보아야 한다. 소설의 여러 요소들을 주의깊게 보고 ‘아,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그것이 소설을 읽고 찾아낸 주제가 되는 셈이다.

한편 서술자의 시각인 시점을 지나쳐 버리기가 쉬운데, 소설의 시점은 이야기의 관점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형식이다.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는 여섯살 난 옥희가 ‘나’로 등장하여 어머니와 사랑방 아저씨의 사랑

과 갈등을 그려가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과부와 홀아비의 사랑을 소년 소녀의 첫사랑 애기같이 풋풋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분위기에 빨려들어가게 된다.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주인공인 이인화라는 대학생의 눈을 통해 그가 바라보는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실주의 작가인 염상섭이 택한 대학생 주인공과 객관적 서술 방법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살피서 작가가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 주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은 소설을 읽는 또 다른 묘미이다.

간혹 우리들은 소설을 읽고 교훈적인 주제를 찾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왜냐하면 소설은 인생의 의미를 작가 나름대로 새롭게 구현시킨 예술이지 도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수 필

수필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자유로운 형식에 의해서 표현하는 문학의 종류이다. 그리고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진실되게 쓰여지기 때문에 크고 잔잔한 감동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수필을 읽을 때는 마음을 열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설처럼 ‘이 끝은 꾸며 쓴 허구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자연히 그 감동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수필은 내용의 무게와 화자의 태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생활속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볍게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주정적이고 감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수필이고, 다른 하나는 무게 있는 삶의 얘기를 논리적이고 사변적이며 지성적으로 그리는 중수필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부드러운 어조로 쓰여진 경수필을 좋아하고 딱딱한 중수필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기쁜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중수필을 읽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중수필을 읽으면서 얻은 사색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여유를 갖고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키워준다.

수필을 읽을 때에는 유머와 위트를 찾아 보자.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생활의 넉넉함과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기행형식으로 쓴 수필은 여정에 따라 감상과 견문이 적혀 있으므로 마치 여행을 떠난 나그네의 심정이 되어 그곳을 직접 기행하는 기분으로 읽어야 실감이 난다. 또한 전기형식의 수필은 훌륭한 인물의 생애에서 값진 교훈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인생관과 생활을 비교해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읽어 보도록 하자.

(4) 희곡

희곡은 평상시에 우리들이 잘 읽지 않는 문학장르이다. 왜

냐하면 소설처럼 섬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나 서술이 없고, 사건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지시를 통해 이루어져서 무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곡은 무대상연을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소설처럼 읽으면 안된다. 독자 자신이 연출가가 되어 마치 연극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대단히 흥미로울 것이다.

원래 희곡은 연출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전명작 『춘향전』을 가지고 만든 영화 ‘춘향전’은 영화감독의 창의에 의해 각각 다르게 만들어져서 다른 느낌과 감동을 전해 주기도 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도 400년 가까이 수많은 연출가의 개성과 예술적인 감성에 의해 공연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도 희곡을 읽을 때 무대의 배경, 인물의 표정, 몸짓, 어조, 음향, 조명 등을 자유롭게 상상해가면서, 자신의 머리 속에서 한 편의 연극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처럼 연출해 보도록 하자. 희곡에 등장한 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여러분을 만나러 올 것이다.

(5) 설명문과 논설문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글의 종류에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다. 우리는 이 글들을 읽고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정립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는다.

설명문과 논설문에 쓰여지는 글은 문학과는 달리 ‘사전의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뜻’ 그대로이다. 그래서 뜻이 매우 명료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쓰여진다는 특징이 있다.

설명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현상이나 정보를 알려주므로,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읽어야 한다. 설명문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개념의 뜻을 풀어 놓는 ‘정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기 위한 ‘예시’, 두가지 사물의 유사성을 밝히는 ‘대조’,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지정’ 등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각각의 설명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드러내 주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한다.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글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새롭게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논설문은 어떤 주장을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논증해나가는 글이다. 그런데 주관적인 주장을 떠나가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유도할 수도 있다. 즉 논리는 맞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전제와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포유동물은 육지에 산다.

그러므로 고래는 육지에 산다.

위의 삼단논법은 논리전개과정은 맞을지라도, 앞의 전제가 거짓이므로 결론도 거짓이 된다. 그러므로 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주장이 옳고 정당한가,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거해가는 과정이 바르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한다. 이렇게 논설문은 비판적으로 읽어야만 바르고 정당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논설문도 역시 설명문처럼 필자의 의견과 자신의 견해를 비교해 보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의견은 걸러내야 한다. 이 때 고집쟁이처럼 다른 의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의 아집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은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독후감은 이렇게

무엇 보다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반드시 써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독후감을 읽으면 다시 한 번 책의 내용을 음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리한 비평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독후감은 어떻게 써야 할까?

우선 독서공책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독후감을 쓰는 것이다. 길지 않더라도 꼭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훌륭한 독후감을 쓰려는 욕심보다는 자신이 느낀 작은 감상을 적어 보는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 독후감을 잊지 않고 쓰려는 노력이 나중에 여러분을 훌륭한 서평가나 독자로 키워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말 : 책을 읽게 된 동기와 내용 요약

본 문 : 책의 부분마다의 감상

맺음말 : 책 전체의 감상과 비평

위와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쓰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위의 격식에 따라 쓸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개성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을 개발하여 수필처럼 써도 좋다. 다음은 책을 읽고 난 느낌을 꾸밈없이 자유롭게 쓴 고등학교의 독후감이다. 여러분이 독후감을 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살펴보기로 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읽고

교문 앞, 지도부의 살벌함을 느끼며 등교하는 이은주. 고등학교 2학년의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 아빠는 판사, 오빠는 박사. 부족할 것 하나없는 환경에서 사는 은주. 그러나 은주의 등교길은 행복하지만은 않다. 오로지 범대만을 손짓하는 매사가 의미없고 슬프게만 보인다.

왜 공부하는가? 왜 살아가는가?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이 질문에 섣뚱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일 것이다. 우리반 50명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소신을 갖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으리라. 나 자신도 이 두려운 질문에 그저 침묵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해 가는데 21세기의 문턱에 선 우리들은, 18세기의 내용을, 19세기의 선생님에게, 20세기의 건물에서 배우고 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인격과 가치관의 형성 등은 다 미루어둔 채, 하루 15시간을 입시공부에만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왜 공부하냐고?

어른들의 꼭두각시 인형이라고나 할까? 창공을 가르며 마음껏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이 아닌 태양에 감겨 지저귀는 기계새.

은주의 주변에서 은주에게 관심을 보이는 봉구는 은주를 좋아하지만 공부 잘하는 그녀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생각하며 망설인다. 은주 엄마의 눈을 피해 은주와 친해지려는 봉구의 눈물 겨운 노력은 은주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엄마의 감시의 눈이 은주를 슬프게 한다.

성적표와 성적공개, 계속되는 시험, 여러 가지 체벌……. 은주네반 아이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숨가쁘게 살아간다. 마음을 못 잡는 아이들은 거리를 헤메지만 갈증을 풀어주기는 커녕 무섭게 다그치는 선생님, 이사장이 학생의 돈을 뜯어 배를 불러도 수수방관하는 현실, 보충수업을 놀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학부모들, 아이들의 살벌한 경쟁 속에서 은주는 절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창수에게는 배부른 소리일 것이다. 창수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에 나가는 일조차 걱정해야 한다. 병에 시달리고 계신 아버지, 뼈빠지게 고생하시는 어머니, 가난을 버리고 집을 나간 누나. 같은 반 문도는 자가용을 타고

거들먹거리며 창수를 조롱한다.

금기야 교실에서 도난사건이 생겼고, 창수가 의심을 받는다. 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창수의 가슴은 멍이 든다.

조물주는 인간에게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을 주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굶주려야 하나? 과소비를 하지말라는 구호는 누구에게 해당된단 말인가? 한 끼에 수만원씩하는 뷔페와 매일 점심을 굶는다는 국민학생들이 있다는 보도는 또 무슨 조화속 일까?

하기는 우리들도 피골이 상접하여 굶어 죽는 소말리아인들을 TV로 보고 불쌍하다 하면서도 바로 옆 친구가 가난에 시달리는 것은 모른 척하지 않았는지……. 선생님이 우리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친구를 성적으로 재보지 않았는지…….

힘겨운 생활을 이끌어 가던 은주는 떨어진 성적을 보고 자신이 초라해졌다. 아니, 사는 것이 두려웠다. 엄마의 무서운 눈초리, 아버지의 냉담함, 왜 자신은 늘 죄지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삶의 중압감에 견디다 못한 은주는 투신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

중3 때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한 학생을 보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죽을 힘이 있으면 그 용기로 다시 한 번 삶에 도전해 보지. 어리석은 일이야.”

나 역시 자살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은주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은주의 선택은 그녀가 태어나서 최초로 한 선택이자 최후의 결정이었다. 언제나 엄마의 의도에 의해 살아 왔던 은주. 나는 그녀의 죽음은 그녀가 자유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로와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출구를 찾게 마련인데, 은주는 죽음으로 그 출구를 찾은 것이다.

인생은 길고 매우 다양하다지만, 이 사실을 성적만을 세상의 잣대로 여긴 은주에게 알려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한 명도…….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피해자이기에 이 작은 책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필자의 창작 목적이 다만 위로였기에 나는 많이 울었다.

이 책을 눈물로 덮으면서도 나는 이 책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왜 우리 교육현실이 학생의 자살로 얼룩져야 하는 것인지, 이 현실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보고 눈물을 흘린 나도 다시 성적에 얽매이는 현실로 돌아와 은주처럼 입시에 부대끼고 있지 않은가? 은주처럼 갈등하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소설이 아닌 이 현실을 어찌란 말이나?

오늘도 우리들은 좁은 대학문에 기를 쓰며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학벌주의와 출세주의, 아니, 그 사회의 병폐에 몰들어 버린 우리들의 그릇된 가치관, 정말 어찌란 말인가?

이 무수한 물음표를 남기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내가 앞으로 살아 가면서 두고두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자의 독후감이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책에서 느낀 자신의 생각을 잘 조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독후감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심화시켜 주고 의식을 성장시켜 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런데 독후감을 이렇게 길게 쓰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었던 부분만을 뽑아 간단하게 작성하는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 왕자』를 읽고

어른들에게 그들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동심의 맑은 세계로 이끄는 생텍쥐페리의 이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롭다.

비행기 조종사인 나는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다. 그곳에서 바오밥나무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별과 자신의 장미를 살리기 위해 양을 구하러 온 별의 왕자님을 만나게 된다. 왕자님은 나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조른다.

왕자님은 매우 엉뚱한 존재였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여우와의 대화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지구에 핀 장미를 보고 매우 실망한다. 그리고 별에 두고 온 자신의 장미가 자신에게 매우 의미있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이는 자신이 가꾸려고 애쓰고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인 것이야말로 가치있고 의미있는 것이라는 작은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대했는가? 늘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하니, 어떨 때는 마구 대해서 그들에게 실망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정원에 돌보아지지 않는 장미였다. 장미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나의 장미가 못생겼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다니…….

『어린 왕자』는 읽을 때마다 나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는 좋은 책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한편 문학서가 아닌 논설문이나 설명문은 독후감을 쓰기는 곤란하므로 내용을 요약하여 독서공책에 정리해 보자. 요즘 신문사설을 읽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는데, 다음과 같이 사설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우선 독해력과 어휘력이 크게 늘 것이다. 다만, 논설문 같은 경우는 반론을 펴 보기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독후감을 쓴다면 비평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역사적인 韓一中 修交

大韓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이 드디어 국교를 수립했다. 이 修交는 두 당사국이 각각 전통적인 우방의 반대와 불만을 무릅쓰고 이룩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기존의 우방과의 관계에서 얽매어 온 틀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구가되어 오던 ‘냉전以後’ 시대가 드디어 한반도, 동북아시아에도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韓一中 수교는 단지 두 나라만의 관계개선 차원을 훨씬 넘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비애를 안고 있는 두나라가 각자 새 우방을 찾기 위해 舊우방과의 신의를 버렸다는 점에서 그것은 韓一蘇 수교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또 동북아시아, 한반도에서도 이데올로기가 무색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한국은 북방외교를 일단 매듭지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통일외교를 얼마나 훌륭하게 이룩하느냐이다. 북방외교란 결국 통일을 위한 수단이었고 보면, 북방외교의 성과가 통일을 향한 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종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서로 경계하며 버티고 있던 이른바 4強의 대응적 외교도 현저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자세가 통일문제, 민족문제, 그리고 동북아의 지각변동에 중대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종언을 고하며 소련-동구가 붕괴되었고, 혈맹관계의 중국까지 돌아서는 역사의 전환점에서도 ‘우리식 대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국이나 주변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적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역사의 전환을 인식하는 것이다. 韓-中 수교 후에도 중국이 북한과의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해도, 이미 그것은 허깨비처럼 공허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도움을 청할 곳도, ‘혈맹의 義’로서 기댈 곳도 잃어 버렸다. 남북한 문제는 주변 열강의利害에 좌우되기보다 한민족 내부의 문제로 좁혀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더 현실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역사 발전에 동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韓-中 수교가 우리에게 장미빛으로만 장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우리에게 대해 ‘大國’으로 군림했고, 우리의 분단에 책임이 있으며, 6·25동란 때는 통일의 기회를 앗아간 과거를 갖고 있다. 앞으로 韓-中 양국은 수교과정에서 간과되었던 과거 整理에 함께 노력해야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두나라 국민간의 굴절된 情緒도 극복해야 한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위의 사실을 요약정리하기 전에 읽을 수 없는 한자독음과 뜻 모르는 단어풀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문을 작성해야 한다.

〈한자독음〉

- | | |
|-----------|-------------|
| * 修交 : 수교 | * 韓－蘇 : 한－소 |
| * 整理 : 정리 | * 情緒 : 정서 |

〈단어풀이〉

* 구가(謳歌)

- 1)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함.
- 2) 행복의 처지나 기쁜 마음 따위를 거리낌 없이 나타냄.

* 촉발(觸發)

- 1) 사물에 맞닥뜨려 어떤 느낌이 일어남.
- 2) 무엇에 닿아 폭발함.

* 호혜(互惠)

서로 특별한 편익을 주고 받는 일.

〈내용요약〉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드디어 수교를 했다. 분단의 비애를 안고 있는 두나라가 각자 새 우방을 찾기 위해 구 우방을 버렸고, 이는 동북아시아에 이데올로기를 무색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수교로써 우리의 북방외교는 일단락되어 앞으로 통일을 향한 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자세가 통일, 민족, 동북아의 문제에 중대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역사의 전환을 인식하여 남북대화에 더 현실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북한은 진정한 개방-개혁 정책으로 역사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수교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중국과의 과거 정리이다. 오랜 역사에 걸쳐 중국이 우리의 대국으로 군림했던 것과 분단의 책임, 6·25의 참전으로 인한 피해 등 두나라 국민 사이에 굴절된 정서를 바로 잡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문〉

역사적인 한-중 수교에 임하여 앞으로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한-중간의 굴절된 과거가 극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나’에 관하여 도움될 만한 몇가지 사항을 대강 살펴보았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좋은 책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를 해 보는 일이다. 그리고 독서공책에 내용을 간추리고 자신의 감상과 느낌을 적어 보기를 바란다. 지식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책의 세계로 들어가자. 무궁무진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다가설 것이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

우리나라의 유명인사들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으며, 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회각계 유명인사들의 독서경험과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책에 얹힌 이야기를 담았다. 이곳에 담긴 한분 한분의 소중한 글을 읽어가면 책읽기의 소중함을 마음깊이 담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

강 석 규

호서대학교 총장

나폴레옹은 키가 156cm에 불과하여 불란서 사람으로서는 난장이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재주가 뛰어난 편도 아니어서 사관학교 시절 그의 성적은 중간 정도였다. 이 두 가지가 나와 비슷하여—나의 키는 나폴레옹보다는 조금 크지만 160cm로 작은 키이고 재주도 없어서 국민학교 내내 중간 성적이었다—알게 모르게 친밀감이 들었던지 젊은시절에 나는 나폴레옹 전기를 여러 번 읽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실제로 그의 전기를 읽어 보면 열등의식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남달리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생명을 걸고 전력투구하는 청년기를 보냈다.

사람이란 꿈이 크면 클수록 숨은 능력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평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는 능력의 $\frac{1}{10}$ 이하 밖에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이다. 그러므로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큰 꿈을 가질 때, 이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노력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나감으로써 성취의 만족감을 맛본 것은 물론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마침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커다란 자신감까지 가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인생성공은 재능이나 몸이나(잘 생겼느냐 못 생겼느냐) 환경 등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작으나, 그 꿈이 확고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라는 격언도 있다. 많은 꿈을 가져라.

산에 올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해변가에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앞날의 인생을 설계하라.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선배들의 인생을 본받는 것도 좋다.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은 항상 태양을 향하여 걷는 자 앞에만 나타나는 법이다. 밝고 밝고 환한 곳만 보고 나아가자. 그리하여 크고 아름다운 꿈을 성취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란서의 여성문조들

권 영 자

한국여성개발원
원 장

내가 청소년이었던 시절은 6·25 전쟁을 치른 뒤끝이라 교과서조차 충분히 갖추 수 없었던 가난의 시절이었다. 농촌 출신인 나의 경우는 등록금과 도시의 자취비용을 염출하기조차 어려워 교과서외의 도서의 구입이나 소설책, 영화관람 등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 이런 가난은 대학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도서관에 쌓인 장서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불란서 문학을 전공한 탓에 외국문호들의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나로 하여금 철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역사 발전이나 사회참여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 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학시절에 섭렵한 책은 양적으로는 많지 못하였지만 교수님들의 강의 부족분을 많이 메워주었다.

대학졸업과 함께 문학을 버리고 사회문제를 다루는 언론에 몸담으면서 나의 독서취향은 자연 여성문제로 모아졌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불란서가 낳은 여성문호들의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를 크게 자극하기도 했지만 나의 삶 그 자체가 여성문제였기 때문이다.

책 때문에 이사를 못다닐만큼 모아놓은 우리 집의 책은 우리 부부와 두 자녀가 번갈아 사들인 것이다.

철학, 문학, 종교, 사상 등 없는 것이 거의 없이 꼽힌 책방을 둘러 보면서 지금의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게 된다.

책이 없던 시절의 가난을 지금의 젊은 세대는 모른다. 전자오락에 빠진 아이들 역시 책 읽는 맛을 모른다. 책 속에서 동지를 만나고 책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독서, 폭넓게 책을 읽으면 세상 보는 눈의 폭도 넓어진다. 잠자기 전 머리맡에 책을 놓는 습관을 일찍부터 들여 보라■

사랑의 진실

김 남 성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근 2, 30년 동안에 한국의 문화사회는 크게 변했으며, 그와 함께 청소년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청소년들의 생활장소는 주로 학교와 가정이던 것이 요즘에는 학교이외의 특정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많이 만난다.

서울로 말하면 대학로나 돈암동의 뒷골목은 주말이 되면 청소년들로 꽉 차 있다. 그러니만큼 남녀간의 만남도 자유스러워졌다. 쌍쌍의 남녀간에는 손을 잡거나 서로 안고 거리를 걷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60년대에는 극장에서 외국영화의 키스장면이 나오면 관중들은 거의 모두 머리를 숙이고 그 장면을 보지 못했으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적나라한 베드 씬까지도 수줍음 없이 바라본다. 그렇게 된 것은 선정적인 내용의 영화들이 점점 경쟁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행가의 내용은 사랑의 표현이 직접적이고 단차원적이며 육욕적(肉慾的)인 것이 많다. 이와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같은 선정적인 문화속에서 청소년들의 사랑 문화는 정신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생리적 만족의 경향을 띄며 일시적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사랑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럽기까지 해야 하며 사회적 전통과 풍속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정열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끝없이 창조하는 생산적인 것이어야 한다. 소비적인 사랑은 단명한다. 꽃을 가꾸듯이 끝없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랑은 영원하고 항상 새로우며 신비스럽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한번 읽어보라. 그리고 시대와 장소와 등장인물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랑의 진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이다. 베르테르와 로테의 사랑은 아름답고 숭고하며 겸손하고 교양 있으며 절도와 예절이 있고 사회의 규범에도 맞는다. 그들의 사랑은 예술적인 경지에까지 승화된 것으로 느껴진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할수록 충동적이거나 육욕적이지 아니했고 교양과 예절이 함께 있었으며 결코 그 당시 그곳의 사회규범과 풍속을 깨뜨릴 수 없었으므로 베르테르는 죽음으로 사랑을 승화시킨 것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진실한 사랑을 배우고 느껴보라■

성경을 통해 배우는 사랑

김 대 현

원주대학교 의대
산부인과 과장

내가 의사의 길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동기와 본보기가 되신 한 인물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세상의 잃어버려진 자들 곧 죄인,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을 찾으려 스스로 낮아지신 분, 이들의 상한 육신, 지친 마음, 소외감을 민망히 여기시고 온전히 고치신 치료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비록 고된 일상이지만 치료에 동참하는 나의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 또한 그분이 나의 일에 동참하신다. 성경은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성경은 마음을 낮추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특권을 준다.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열린 세상에서 자유함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사랑을 배우자. 성경을 통해.

다음은 성경의 한 구절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그대는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진리에 머물러 있으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요, 진리를 가리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완전히 준비되는 것입니다.’(디모데후서 4장 14절~17절)■

손에는 책을, 가슴엔 꿈을

김 성 하

전 주 고 등 학 교
교 장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도 사는 모습이 다르며,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도 우열의 골이 있다. 같이 출발한 경주자들이 모두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며,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모두 우등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겐 이처럼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관심은 노력을 가져오고 노력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서예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서당에 다니며 천자문을 익히고 명심보감을 깨우치는 동안 필력도 어지간히 다듬어졌다.

한번은 산정에 오르다가 낡은 비석을 보게 되었다. 장구한 세월 풍우에 씻겨 제 모습이 퇴색된 것이었지만 비석에 새겨진 서체가 그분 마음을 끌었다고 한다. 그 뒤로 비석의 서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이제는 큰 취미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관심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생각하는 것이 참신해야 한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건전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순수해야 한다.

따라서, 손에는 책을, 가슴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인생의 거울

김 세 경

제물포고등학교
교 장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과 그 이상에 대한 깊은 연구로 후세의 등불이 되었고, 정치가 아브라함 링컨은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여 인류 문명의 새 장을 열었다. 셰익스피어와 괴테는 그의 작품을 통하여 인간성의 탐구와 인간의 정신적 고양에 기여한 바 크다.

흔히 말하기를 문학작품은 ‘인생의 거울이다’ 또는 ‘사회의 반영이다’라고 한다. 실제로 시, 소설, 희곡 등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연령적으로는 어린이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계층적으로는 인생의 하층 계급부터 회사원, 공무원, 의사, 과학자, 사장, 법률가, 정치가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 무수한 인간 군상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선악의 갈등 속에서 부침하고 명멸하여 마치 인간 사회를 손바닥에다 놓고 보듯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일찌기 청소년기에 읽을 수 있다면 여러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분들은 그만큼 빨리 인간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풍부한 정서 함양과 더불어 인격의 수양을 쌓을 수 있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책의 선택은 ‘한국문학전집’과 ‘세계문학전집’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이고, 특별히 몇권의 책을 추천하라면 국내작품으로 심훈의 『상록수』, 홍명희의 『임꺽정』, 외국작품으로 괴테의 『파우스트』, 톨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을 권하고 싶다■

독서의 가치

김진호

순천대학교 총장

오늘날

인류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는 인간성의 상실, 공동체의 해체, 자연환경의 파괴로 집약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성의 상실과 메달라가고 있는 정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지난 30여년간의 교직 생활을 통해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독서라는 생각을 해 왔다. 젊은 날에 밤을 새워서 읽었던 무수한 책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고 앞으로도 나를 지탱시키는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독특한 향취에 지금도 가슴 설레임을 느끼고 그 속에서 풍요를 누리며 무한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무엇보다도 커다란 축복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의 젊은이들이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하고, 근점과 절약보다는 풍요를 구하고 있으며, 학문보다는 실용성만을 강조하므로써 매사에 급하고 단순화되어 가고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있음을 보면서 가슴을 조이게 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책을 읽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디즈레일리는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다.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는 사람은 사물과 사상을 봄에 있어서 전체가 아닌 부분밖에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편견과 군중심리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철학과 인생관을 확립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독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 이제 우리는 지역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계층간의 갈등을 비롯한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 위한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서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고가 자기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발전의 원천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독서가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부스러기 시간에도

김 형 태

한 남 대 학 교
교육학과 교 수

한국의 활발한 근대화 추진에 위기를 느낀 일본의
관계전문가들이 관광을 핑계삼아 우리나라
곳곳을 한달가량 여행하면서 한국이 과연 일본의 상대가 될
수 있겠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유인즉 한국인들은 책을 읽지 않고 공동으로 쓰는 물건
을 아끼지 않으며 부스러기 시간이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한국인 성인
의 평균 독서량은 1년에 9권 정도이다. 대개는 그날의 신문
을 읽는 것으로 독서를 끝내고 만다.

TV와 영화의 영향 때문에 밤새워 책 읽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속전속결의 관행은 군사적 용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태도가 되어 버렸다. 짧게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밤새
워가면서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 경제원칙에 의해 살겠단
는 것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그러나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넘게 차지한 유대민족의 자녀교육은 남다른 데가 있다. 신앙지도와 민족교육 그리고 독서교육으로 대표된다. 탈무드를 반드시 읽게함과 아울러 어린 자녀의 베갯머리 옆에서 어머니는 꿈을 길러주는 동화책, 세계적 안목을 심어주는 여행기,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성경의 독서를 가정교육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런 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고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원리를 발견하며 인류문화의 성장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삶의 질을 높이며 학문의 발전과 과학의 혁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 영상매체를 통한 표층적 문화를 극복하고 깊이있게 사색하며 맛을 보는 독서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보자.

남자들의 호주머니마다, 여자들의 손가방마다 한권의 책을 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부스러기 시간이 있을 때는 책과 대화를 하자. 동서고금의 지혜와 만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들어보자. 그리고 서로 깨닫고 발견하고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더 윤택하게 가꾸어 보자.

어렸을 때 다 배우고 난 현교과서도 아까워서 팔지를 못하고 계속 꾸러가지고 다니던 나는 결국 서재에 묻혀서 사는 교수가 되고 말았다. 책에 대한 소원을 만족하게 해결했다고 나 할까■

젊음의 꿈

노 병 호

전일여자고등학교
교 장

가을 햇살이 비친 영롱한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젊음의 꿈을 오색 찬란한 무지개와 같이 펼쳐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은 입시전쟁으로 인하여 전인교육의 모태를 망각함은 물론 독서와는 아예 담을 쌓고 지내거나 설명 책을 읽더라도 자기 취향에 따라 흥미 위주의 단편적이고 국부적인 몇 권의 독서에 그치고 만다.

그러므로 오늘날 청소년들은 융통성이 없고 매사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고하며 근시안적인 판단하에 단순한 혈기로 행동한다. 또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문화에 쉽게 물들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릇된 행동을 추구하므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고학력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물론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으나 실무면에서 학력만큼의 능력을 과시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응용적 사고의 구성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교과서 이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외의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몇천년 역사의 흐름속에서 선인들의
인생관과 철학이 담긴 양서를 읽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고
력과 판단력을 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
으로 자라나야 할 것이다■

보람된 삶

리 수 용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책 읽는 곳이 따로 있지 않듯이 책 읽는 시기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독서는 사람들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교양을 넓혀주고 또한 지혜롭게 해주는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독서를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이러한 독서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람되게 살아가자면 우선 사물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길은 독서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알려고 하는 욕망이 제일 왕성한 젊은 시절에 될수록 많은 독서를 하여 배운 것을 몸에 지니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책은 곧 몸을 맡기는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또 『직언결』에 이르기를 ‘초를 만드는 것은 밝음을 구하기 위함이요, 독서는 진리를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이것은 바로 밝은 빛으로 어두운 방을 비추도록 하고 진리로 마음을 비추도록 해야 함을 일깨워 준 말이다. 인생관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 또 환경과 시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참다운 인생관은 역시 청소년 시절에 독서의 생활화로 그 기틀을 잡아야 한다.

6·25전쟁의 와중과 전후였던 나의 청소년 시절은 지금처럼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서적이 풍부한 세월이 아니었다. 그래도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것은 구약성서 중 잠언의 말씀들이다. 여기에는 도덕원리와 올바르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격언, 교훈, 도덕률이 들어 있어 많은 감명을 받았다.

선친께서 생전에 늘상 읽고 난 나의 책 안표지에 써주시곤 하셨던 ‘명심불망 하사불성(銘心不忘 何事不成 : 마음속에 새겨두고 잊지 아니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리)’은 지금까지 독서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어 늘상 펼쳐보게 된다■

교양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 병 천

동국대학교 총장

사람들은 남의 말과 글을 듣고 읽어 자신의 행동과 판단에 도움을 얻는다. 여러가지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다.

더우기 청소년기에는 남의 말과 글과 행동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떤 글들을 보느냐, 어떤 말들을 듣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말을 듣는 것은 많은 경우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 학교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 그리고 친척과 선배 등 남이 결정하는 수가 많지만, 독서는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기에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할 것인가? 국민학교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의 독서의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위인전 중에서 소년, 소녀시절과 관련된 것을 많이 읽어 두는 것이 좋다. 그것은 자기의 생활에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직접적인 표준이나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애국 소년과 소녀들의 이야기, 효도하는 어린이의 이야기, 또래와의 즐거운 생활 이야기 등 행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권하고 싶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문학전집, 역사소설 등을 읽어 시야를 넓히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그 뒤에 인생론과 사상전집이나 논설집 등을 읽어 예비지식인으로서의 자기능력과 실력을 쌓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나는 고교시절에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으며, 「학교생활」 「교우관계」 「독서생활」 등에 관한 교양물과 일부의 사상가들의 저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지금 청소년들은 입시에 매달려 교양서적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틈틈히 읽어 둔 교양서적들에서 얻은 지혜는 앞으로의 인생에 살이 되고 뼈가 될 것으로 믿는다. 시험기계보다는 넓은 교양인으로 자라기를 바랄 뿐이다■

고전의 맛

박 병 돈

갈산중·고등학교
교 장

지금처럼

책이 넘쳐 쏟아져 나오는 책풍년(?)시대와는 달리, 우리 오·육십대는 해방 후 정부가 안정되기까지 책을 구해서 읽는 일이 참으로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보냈다.

늦게나마 대학에 들어간 후, 비로서 대학도서관(지금 시골학교 도서실 정도)을 드나들며 책을 가까이 대할 수 있었으니 한편 다행스러웠고 한편 부끄럽기도 했다.

고전은 소설책과는 달리 나이가 먹을수록 음미하는 맛이 다르고 절실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간간이 펼쳐 보는 독서의 습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키기도 하며, 부끄럼 없는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어 마음을 정화할 수 있지 않는가?

독서는 학교에서의 형식적인 교육과정의 학습과는 달리 자기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바르게 다스리고 교양을 쌓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서 독자 자신의 어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필요성, 자극, 의욕 없이는 독서의 습관을 기르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한권의 고전이라도 항상 가까이 두고
간간이 읽어 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독서의 습관을 기르는 첩경이다.

고전을 가까이 하는 독서습관은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너그럽게, 여유 있게 사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일이다■

마음 디스켈

박 승 국

계 명 대 학 교
동 산 병 원 장

어릴 때 맛들인 된장국을 끓여서도 찾게 되는 것은 세살적 뇌세포가 기억하였던 맛을 여든 가서도 생각해 내기 때문이다. 요즘, 흔히 쓰는 컴퓨터 디스켈에 입력했던 자료들이 언젠가는 정리된 상태로 출력되는 것과도 흡사하다.

6·25 동란이 끝나고 아직도 사회는 어수선하여, 서로 먼저 가지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는 아랑곳 없이 부패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보다는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 였다.

내 나이 아직 스무살 전후에 마하트마 간디 옹의 전기를 읽은 것이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막강한 대영제국의 지배하에서 무지하고 가난한 인도 민족을 ‘무저항 운동’이란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써서 어렵지만 결국엔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이다.

손가락 하나로도 밀어서 넘어뜨릴 만큼 보잘 것 없는 깡마른 조그마한 영감이었지만, 막강한 영국정부도 어쩔 수 없었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던 것은 간디 옹의 착하면서도 강한 마음 때문이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 정신 그리고 영혼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육체는 좋은 밥 나쁜 밥을 가려 먹고, 정신은 수학, 물리, 지리, 심리학 등 많은 학문을 익힌다. 영혼을 마음이라 하자. 마음은 마음대로 책을 먹고 산다. 책에도 좋은 책 나쁜 책이 있다. 양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책은 흔히 읽기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다.

마음은 정신을,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세계의 역사는 근육이나 머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다. 지배자 히틀러의 마음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게 하였고, 무저항 주의자 간디 옹의 마음은 민족을 살렸다.

젊은이들의 마음은 빈 컴퓨터 디스켓과 비슷하다. 입력된 대로 출력되게 되어 있다. 젊은이들의 깨끗한 마음 디스켓에 제일 먼저 좋은 책을 읽어 넣어주면 좋은 인품이 출력될 것이다■

지천명의 나이에 읽는 어린왕자

박 채 환

구포중학교 교장

청소년기는

불확실한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감으로 방황하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지 못하여 화려한 유행의 허상을 좇아 방황하기도 하고, 성급하게 기성 세대의 걸모습만을 모방하여 그릇된 길로 빠져들기도 한다. 이런 허상과 모방에 물들지 않고 곳곳이 주관을 세워 힘차게 전진해 나가면 빛나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으며 이 청소년기는 인생의 황금 시절이 될 것이다.

곳곳이 주관을 세우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의 축적은 바로 양서를 골라 읽는 데 있다. 특히 세계적인 위인들의 삶을 그려 놓은 책들로 청소년의 마음을 풍부하게 살찌울 수 있는 아름다운 책들을 가까이 한다면 더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진 것이라 믿는다.

지천명의 나이를 훨씬 넘은 나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어린 왕자』는 청소년기의 방황과 좌절을 바로잡아 줄 훌륭한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책이라고 진정으로 권하고 싶다. 생텍쥐페리의 이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도 하는데 어른이 되기 전에 읽어 본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물질적인 안목보다 정신적 안목의 고귀함을 얘기하는 어린 왕자는 소혹성을 여행하며 그릇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성세대를 바로 잡아보려 애쓴다. 그리고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삭막하고 이기심이 팽배한 요즈음 시대에 희생적이고 정성스러움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속삭여준다. 사막에서의 우물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며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인생의 목표 설정과 그것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진정한 삶의 보람임을 깨닫게 해 준다.

심심할 때나 짜증이 날 때 손에 잡히는 대로 펴서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며 어느 한 구절을 읽더라도 참된 교훈과 순수함을 심어 주는 이 책이야말로 청소년의 필독서라고 권장하고 싶다■

남아수독오거서

배 한 영

대구협성중학교
교 장

요즘 청소년들을 보고 늘 안타까워 하는 점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V 및 비디오 매체의 폭발적인 보급의 영향도 크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에 더 큰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책 속에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공자도, 예수도, 석가도 있으며 그들의 삶이 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성인, 성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책이 아니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을 무슨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육체 건강을 위하여 밥을 먹고 운동을 하듯 정신 건강을 위하여 교양을 쌓고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독서다. 책이다. 책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쌓고 지식을 얻으며 교양을 쌓아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공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인이 되는 것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이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진실로 건강인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앞날은 밝다. 조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힘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의 힘은 책 속에 들어 있는 양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책은 스승이요, 나침반이며, 등대이다. 옛말에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이 있다. 많은 독서를 강조하는 말이다.

조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힘은 책 속에 있다■

논어와 장자

빈 영 호

경상대학교 총장

조선조

세종 성종 연간의 학자 김수온은 사람의 얼굴이나 언행을 잠시 보고 그 사람이 소학만 읽은 사람인지, 사서를 익힌 사람인지, 아니면 삼경까지 본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았다고 한다. 미국의 링컨대통령도 어떤 인물이 추천되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성서 한 구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다”면서 퇴짜를 놓았다는 일화가 있다.

이 얘기들은 책을 통해 얻은 교양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흔히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책이 우리의 마음을 순화하고 정신을 살찌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의 질곡 속에서 책을 읽는 기회를 가지는 것 못지 않게, 어떤 책을 선정하여 읽을 것인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전을 권장하고 싶다. 고전에는 우리들의 가슴을 뛰놀게 하는 기운이 행간에 약동하고 있으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며, 하나같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이 가지는 이런 장점들은 최근의 도서가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오래전부터 내 책상머리에는 논어와 장자가 나란히 꽂혀 있다. 나는 삶의 와중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싶을 때는 논어를 읽는다.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자기 생각만으로 그리고 자기 욕심만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배운다. 그러나 때로는 홀로 앉아 속세에 찌든 흔적을 말끔히 씻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장자를 읽으면서 하고 싶은 일도 멀리하고 해야 할 일도 멀리하면서 있는 그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추스려 본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온갖 형태로 발전된 인간정신의 친구가 되는 길, 그것은 위대한 고전을 읽는 일이다■

인격과 지성의 조화

서 정 철

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장

일반적으로

독서는 어릴 때 동화나 옛날 이야기로 시작해서 수필, 소설 등을 읽고 시를 읽어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철학, 사상, 정치, 사회 등에 관한 교양서들을 읽고 취직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자기 업무나 전공분야와 관계있는 책들을 들춰 보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의 독서가 단계적으로 다양화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1단계 독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입시제도이지만 독서를 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독서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작 소설책을 읽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그런 책 읽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요구한다. 말하자면 독서는 공부의 적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야기나 소설을 통하여 독자는 다양한 인간들의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성격과 철학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시를 읽는 것은 감정과 직관의 개발을 통하여 내면적인 자아를 발견하고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독서는 가장 기본적인 독서 단계이면서 주체성과 지적인 능력 개발에 기초가 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제2단계 독서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단계 독서가 충실하지 못하고 또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의 교양이나 전공교육이 독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제2단계 독서는 우리의 평가 비판 능력을 신장시키고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제3단계 전공분야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된다.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명저라고 해도 어느 한권의 책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단계적인 독서는 다른 종류의 책은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비율로 다른 책들도 함께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격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동의 서사시 「레미제라블」

손 중 룰

강남대학교 총장

청소년의

특징을 꼽는다면 그것은 ‘무한한 꿈’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꿈은 청소년에게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나는 목사이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농촌 교회 목회자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빈곤과 궁핍 그대로의 생활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부지런하심과 인내를 본받고 성장하였다. 한 실례로, 나는 매일 아침 4시가 되기를 기다려 새벽기도회를 알리는 새벽 종 치는 일을 도맡아 했고, 엄동설한이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과, 심지어 교회 화장실까지 닦는 일도 나의 차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오히려 「좀더 자자, 좀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놀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언 6:10-11)의 말씀이 나의 전 생애에 깊은 감명을 주는 말씀이 되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4시에 잠자리에서 일어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나며 성경말씀을 읽고 5시에 아침 뉴스를 들은 후 밖에 나가 아침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와같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며,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 올 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능력의 요소가 된다고 자부한다.

나의 청년시절에 간직하였던 꿈을 더욱 현실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문학서적은 불란서의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다. 이 작품은 인간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사회에서 제거함으로써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밝은 빛과 새 용기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감동적인 서사시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자신의 진보와 향상을 성취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나는 어려서 이 작품을 읽고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악」에 오염되지 않고 바른 심성을 간직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 미제라블』, 이 한편의 책은 나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는 나의 노력에 지대한 영향을 준, 감동적인 한편의 파노라마였다고 생각한다■

평생의 독서생활

송길상

경기고등학교
교장

죽는 날까지 책과는 떨어질 수 없는 인연과 숙명에 매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을 가르치는 교직생활에 있다보니 나에게 있어 독서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학문과 연구를 위하여 독서를 하였으나, 50을 넘기면서 정신과 정서를 수련하기 위하여 책을 대하게 된다.

그리고, 고도로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는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양의 독서를 하게 된다.

우선 책을 읽을 때는 참다운 지식과 마음의 양식이 될만한 교양도서를 골라서, 차근차근 세밀하게 읽고 대목과 귀절은 몇번씩 반복해서 읽으며 책의 중심과 핵심을 파악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권의 성서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철학서적을 접하면 소크라테스를 사귀고 플라톤과 벗할 수 있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이런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세계를 충족시키고 이를 더욱 넓게 확대시켜주며 내면생활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것이다.

자기 전공이외의 분야에 깊은 조예를 갖는 것은 인간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며,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우주적인 시야를 가지고 많은 것을 넓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요즈음처럼 격변하는 세상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고 변화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류의 위대한 유산에 깊이 감사하며 철학, 문학, 예술, 종교를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독서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읽은 만큼 멀리 볼 수 있다

송 병 순

광주은행 은행장

책 속에는

인간의 희·노·애·락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 올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들어 있다.

그것은 책이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끝없는 호기
심을 풀어주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혜안을 만들어 주기 때문일 것
이다.

내 차안에는 항상 몇권의 책이 있다. 차뿐만 아니라 내 주
변에는 늘 책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이나 약속을 기
다릴 때 생기는 약간의 짜투리 시간에는 습관적으로 책을 펴
게 된다. 이 시간은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게 해주고 또 휴식을 가져다주는 시간으로 아
주 오래된 습관이다.

책을 구하기 힘들어 모처럼 새 책이라도 한권 얻게되면 만
사를 제쳐두고 몇번이고 다시 읽어 내 것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던 어린시절, 지금도 책을 보게 되면 한번 읽고 덮어 두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메모도 하고 시간이 있을 때 마다 다시 읽어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곤 한다. 내가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새로운 지식이 범람하는 요즘 잠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나의 오랜 ‘독서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책을 읽은 높이만큼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지식을 얻는 일로 책에서 우리의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또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문학 작품속에 제시된 다양한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주고 판단과 공감과 반성과 응시의 자세를 갖게 해주어 금방 방향을 잃어 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우리 국민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치명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모두들 편한 것에 길들여져 쉬운 길로만 가려고들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책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 곳에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헤르만 헤세의 독서예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출구를 발견하기 바란다.■

내일을 향하여

신 홍 균

인천직할시 교육감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은 독서를 통하여 책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꿈을 키우기 위한 힘찬 나래짓을 하리라 본다. 그리고 서로의 즐거운 이야기와 자기의 느낌, 포부같은 것을 꾸밈없이 나누어 보기도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청소년 시절은 지금 여러분의 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라없는 서러움과 배고픔 속에서 남의 나라 정치, 교육제도하에 눈총과 감시를 받으며 남의 말로 공부해야 했던 시절이다. 지금처럼 원하는 어떤 책이라도 구하고 싶으면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닌 때에 우리는 어떤 책을 손에 넣으면 온 정신을 집중시켜 읽고 또 읽었다. 책을 빌어 읽기 위해 수십리도 마다 앓고 달려 가곤 했으며, 기름 등잔 십지가 다 타들어 가도록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 시절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농삿일, 땀감 채취 등 가사일을 도와가며 틈을 내어 공부에 열중해야 했다. 독서에 열중하다 땀감 채취를 깜박 잊고 저녁 해가 뉘엿해질 무렵에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야 부랴부랴 나무 한짐을 겨우 해가지고 돌아와 어론들로부터 호된 꾸중을 듣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정말로 책에 미쳐 밥먹는 일도 잊은 적도 있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늘 깊은 생각과 끈질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절에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책속엔 여러분을 살찌우며 앞길을 밝혀 주는 참된 진리의 스승이자 안내자가 있기 때문이다.

TV만화만 즐겨보고, 쉬운 것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잊고 글을 통한 지식과 교양이 부족하여 사리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세상에 실증을 느껴 낙오되기 쉽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참 뜻을 알 수 없고, 자신의 높은 꿈을 펼 수 있는 큰 빛, 큰 힘, 큰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과 친해 보려고 노력해 보라. 지금 곧 일어나 책 앞으로 다가가라. 그리하여 활기차고 영롱한 눈동자의 사려깊은 청소년이 되기 위한 마음의 양식을 독서를 통하여 차근 차근 알차게 다져 나가도록 하자■

도서실의 여학생

엄 익 태

홍성여자중학교
교 장

목마른 사슴처럼 갈구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젊은이
의 꿈, 희망과 기쁨을 함께 하는 그들은 인
생의 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 아름다움을 옛부
터 많은 사람들이 예찬해 왔다.

그러나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소용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령
공작새라든지 백합꽃은 아름답기 비할데 없으나 열매를 맺
지 못한다. 이는 곧 겉만 아름답게 꾸미고 속은 보잘것 없는
것이라면 어찌 아름답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의 나무에 진정한 열매를 열게 하는 것은 청소
년 시절에 그를 움직이게 한 힘일 것이다. 1949년 12월 어
느날 시장거리 고서점에서 『해』라는 박두진선생의 시집이
눈에 띄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알게 씻은 고은 해야 솟아라
.....”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귀절마다 연상되는 위대한 자연의 신비함과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던 당시의 정서가 지금도 기억난다. 삶의 욕구가 무수하고 상처를 받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생활에서 한편의 시로 인해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를 간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반드시 영예나 부가 아닐지라도 삶의 의욕과 질을 높이며 운택을 누릴 수 있는 내재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다.

이제 젊은이들도 바빠졌다. 조용한 시간을 갖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양서를 가려서 읽는다고 해도 시간은 부족하다. 훌륭한 내용과 가치와 생명을 지닌 영원한 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생명과 부딪치면서 뜻을 세우고 이상을 찾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지면 학교는 조용해진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고 여학생 몇명이 독서에 몰두하고 있다. 시간도 잊은 듯 자신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일심불란(一心不亂)의 순간임이 분명하다■

생활철학이 된 「25시」

엄 재 원

금옥여자중학교
교 장

세상에는 정서를 순화시켜 자기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켜 준다. 그 중에서도 내가 독서를 권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특기가 없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하여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현들은 달빛 아래서도, 눈빛 아래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이 나는대로 많은 책을 읽었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돋힌다.’고 말하였으며, ‘모름지기 남자는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선현들의 말도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문화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때라서 오로지 접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는 책 뿐이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그 속에서 웃고, 울고, 그리고 책 속에 폭 빠져서 나도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세계에서 호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못해 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나에게 감명을 주고 잊지 못하는 책은 게오르규의 『25시』란 책이다. 나라 잃은 설움과 함께 나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이 책은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잡아 지금껏 내 생활철학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40여년동안 교직에 몸담고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이 길도 나라사랑의 한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의 우리 청소년들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다. TV에 심취하고, 오락프로에 매료되고, 각종 전자게임기와 오락기에 매혹되어 있다보니 감각적인 센스와 유희 및 유머는 풍부한데 생각의 깊이가 없다. 그래서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윽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결과 삶의 방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며 한 순간이라도 어디엔가 몰입해 보기 위해서 약물을 오남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현실을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양서를 선택해서 읽도록 지도하고 독서삼매경에 몰입하여 삶을 풍부히 하고 인생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독서를 생활화하여 정서를 함양시키자■

베스트 셀러를 경계하자

여 중 근

부산동성고등학교
교 장

책을 읽어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서도 한정된 우리 생애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좁다는 한계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가 아닌가 한다.

서적 속에서 선인들의 발자취는 물론, 그들의 생활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우리는 쉽게 찾아내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삶에 지표를 설정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역경을 건너 뛸 수 있는 훌륭한 방책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듯 책은 삶의 양식이며 길잡이로서 그 가치를 새삼 말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읽은 감명깊은 서적은 일생동안 좌우명이나 주관의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함부로 아무 책이나 난독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베스트 셀러’를 경계하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잘 팔리는 책들이 시대나 세대에 편승한 고발이나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유명인사의 가벼운 질문 또는 허황한 애정답이나 비현실적인 낭만의 추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베스트 셀러’라는 말은 1885년 미국의 『Book Man』이라는 잡지에서 전국 19개 도시 서점에서 잘 팔리는 6권의 책을 선정 발표한 것이 그 유례인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다.

지금 현재까지 훌륭한 양서로 추앙받으면서 불후의 고전이 되고 있는 많은 서적들이 잘 팔리기는 커녕 당대에는 전혀 인정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으니, 진정한 책의 가치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독자의 영혼을 살찌우는 정신적 양식이어야 하고 작가의 심혈과 고통의 산물이며 그 축적이지 결코 상업성에의 영합이나 명예(매명)의 수단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값싼 유행의 물결에 휩쓸려 팔리는 책을 선택하는 우매함에서 탈피하자■

철강왕 카네기 전기

연 만 희

유한양행 사장

우리들에게

철강왕으로 잘 알려진 카네기에
관한 전기를 읽었던 때가 중학교
재학중으로 기억된다.

일제 말기부터 해방 전후 청소년기를 보냈던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때라 책을 구해서 읽는다는 것 자체에 가슴이 뛰던 시절이었다.

일본어로 된 다이제스트판 위인전기 중에서 읽었던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는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된다.

스코틀랜드 벽촌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철강왕으로 그 자신을 우뚝 세운 카네기의 인간성과 불굴의 의지는 어린 나이에 특히 인상적이었다.

책의 내용중, 하루 18시간 이상씩 일하면서도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고통은 감수했던 것이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은 지극한 효성은 가슴을 찡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생활태도, 불멸의 대야망 등은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대목들이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다시 떠올려지던 것은 경영자 원 중 첫째는 유능한 인재들이란 카네기의 경영철학이다. 많은 유능한 인재를 모아 그들을 신뢰하고 관심을 기울여 육성했던 카네기의 경영철학은 이 시대에도 진리이기 때문이다.

사원으로 입사하여 유한양행의 최고경영자가 된 지금도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카네기와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는 흡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볼굴의 의지, 각고의 노력, 인재의 육성, 사회에 대한 봉사, 부의 사회환원 등은 두분의 모습을 오버랩되게 한다.

중학교 때 읽었던 카네기의 이야기가 이순의 나이가 지난 지금에도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옛 성현들이 말씀하셨던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문학을 사랑하자

오 광 근

남 원 고 등 학 교
교 장

청소년은 밝고 밝고 씩씩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야 한다. 인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기는 생애의 황금시절이다. 이 황금시기를 어떻게 활동하고 살아가야 좋겠는가.

이러한 인생 황금기의 청소년에게 ‘문학을 사랑하자’라고 권장하고 싶다. 청소년에게는 감수성이 빠르다. 그 빠른 감수성에 열락지지 않은 아름다움을 심어야 한다. 그 아름다움은 대자연과 더불어 예술 즉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 중에 인간생활에 아름다움을 넣어주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분야는 바로 문학분야라고 생각된다.

문학은 읽는 사람에게 지은이의 생각이나 감정의 아름다움을 호소하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다.

운율적 언어를 수단으로 시인의 아름다움과 사상의 이상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서 청소년의 가슴에 시적 아름다움이
심어질 것이다. 눈감고 시를 외어보기도 하고 그 시의 미적
세계에 잠겨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경지에 이를 것이다. 나쁜
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은 시의 세계에서 아름답게 자라
날 수 있을 것이다.

소설도 많이 읽어야 한다. 장편소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문학작품이지만 잡다한 장난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소설을 통해서 작가와 친구되어 시간을 보내면 얼마
나 값진 생활이 되겠는가.

소설을 읽어가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가슴에 애정이 싹트
고, 사상도 얻어지고, 선과 악도 구분되어 간다. 작품속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크게 영향을 준
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청소년
들의 인격 형성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또 희곡이나 수필
도 많이 읽어야 한다.

책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잡다한 오락물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중적이고 오락을 위해서 지어
진 문학작품은 절대 금물이다. 권하고 싶은 것은 역시 고전
들이다. 그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을 선택해서 밤새
워 가면서 많이 읽어야 한다. 꼭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문학
작품을 탐독하자. 이것은 아름답고 인격자로 성장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숫구지는 분수

우 명 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독서는 영혼을 맑게 성숙시켜 주고 지혜로움을 길러주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논리성과 깊은 사색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는 유익한 길잡이가 된다.

청소년기는 깨끗하게 비어 있는 미래의 시간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시점이기도 하여서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고 큰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나는 학창시절에 고전문학에 탐닉하여 때로는 밤을 하얗게 지새운 추억을 가지고 있다. 독서는 미지의 세계로 향한 개척이고 꿈이며 만나지 못하는 스승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정보화 시대에서 바쁜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 요즘의 청소년들이 서구문화의 범람 속에서 낭만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나폴레옹은 여행 중에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정도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로 독서열이 대단했다는 일화도 있지만, 책을 생활 곁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리를 판단하는 눈이 밝아지며 어리석은 자도 총명해 지는 것이다.

지식을 넓히고, 정서 함양을 위하고, 완성된 사람을 만들어 주는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앞길을 비추는 등불

윤 대 철

수원북중학교
교장

모름지기

살면서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말이 있다.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얻은 인생의 참된 경험을 스스로의 체험으로 받아들이어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정립하라는 교훈적인 말씀이라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나도 수많은 책을 읽었고 또 읽고 있다.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통하여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춘원 이광수의 『흙』을 읽고 한국적인 입지사상을 굳힐 수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위인전 속에 담겨 있는 그 시대의 영웅들의 꿈과 기백을 본받으려 했지만 『박정희 전기』를 읽고 조국에 대한 참된 애착심이 샘 솟았으며, 요즈음 읽고 있는 『의식 개혁없이 살아가남지 못한다』(나구라 야스노부 지음)라는 책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미래사회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가슴속에 와 닿아 감동했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경기가 좋을 때 경기대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이랴든가, ‘지혜란 머리가 좋다거나 학력이 높은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철학 얘기는 되 썩어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많은 양서속에는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는 좋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빨리 경험하지 않겠는가?■

여건에 좌우되지 않는 의지

윤 순 성

송원여자중학교
교 장

독서의 필요성은 백번을 되풀이 해서 말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독서의 결과는 큰 무게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독서는 때론 단방약으로 즉시 특효를 발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독서는 부지 불식간에 인격 형성의 거름이 되고, 교양미를 꽃피워주며, 전문지식은 물론, 다방면에 걸쳐 건전한 상식인에 이르는 배토(培土)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은 전반적으로 적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독서열 부족은 우리 앞날을 걱정케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책읽기를 게을리하는 까닭을 이렇게 진단한다. 입시경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빼앗겨서. 텔레비전을 비롯한 시청각 기기의 범람으로…….

그러나, 이런 장애 요건은 세계 어느 곳에도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중학시절은 1940년대 전반기였다. 우리들은 심한 노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역(소위 근로동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제는 1년에 2~3개월 씩이나 주로 군사기지 구축 작업에 중학생까지 강제 동원했다)에 시달려야만 했다. 고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점심시간중 30-40분은 호주머니에 간직한 문고판 책읽기에 완전 투자되었다.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했으니 평상시의 우리들 독서열은 짐작이 갈 것이다. 독서열은 어떤 상황이 좌우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와 자아실현의 강한 꿈이 좌우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평있는 양서를 골라 효과적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우선 속되지 않고 재미있고 의미가 깊은 순수 문학 작품부터 읽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훌륭한 문학작품은 미의식을 일깨워 정신을 순화시켜 주고 인생을 자각케 해 준다.

성장함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많이 그리고 깊게 읽어서 전문인으로서의 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이든 전문서적이든 좀 난해하더라도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독파하는 버릇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독서의 질은 틀림없이 높아질 것이다. 난해하다고 팽개치고 쉬운 것만 골라 읽기 버릇하면 만년 제자리걸음을 면키 어렵지 않겠는가■

나의 「파라투스트라」

이 상 일

성균관대학
독문과 교수

나의 침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떠도는 돌맹이 같은 신세였다.

청소년기에는 방황하기 쉽고 정신적 방황은 공간적으로 방황하는 떠돌이 생활을 마다하지 않게 한다. 내가 집에 잘 붙어 있지 못한 것은 그런 떠돌이 방랑벽 때문이었고 그 원인은 정신적으로 헤매다니는 무엇인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래에 대한 잡히지 않는 그리움. 미래가 확연한 모습으로 들어나지 않는 것은 정신력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이며 미래를 향한 의지력이 아직 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방황과 방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별 아래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강변이나 산기슭에서 고독한 사색에 잠기기도 했으며 책속에 나를 파묻기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도 했다. 불경, 성서, 영웅전, 시집 등을 탐독하는 나의 버릇은 그때 길들여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독서를 하다보면 책과의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된다. 내 경우가 바로 그랬다. 대학 2학년 시절 지금은 없어진 대학로의 개천가 쓰러져가는 헌책방에서 우연히 나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손에 쥐게 되었으며, 그 길로 내 자취방에 돌아와 밤을 새워 그 철학적 에세이 혹은 잠언 시집을 읽어 나갔다. 나의 짜라투스트라는 나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초인의 사상, 의지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는 내 짜라투스트라가 말하는 것처럼 〈좋다! 그렇다면 다시한번!〉하는 식으로 새로 도전한다.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전의 자세를 꼳꼳히 하는 법을 되풀이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내 『짜라투스트라』때문이다■

철학과 삶

이 성 천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

나는 어린시절과 청소년의 나이를 북한에서 보냈다. 국민학교 2학년때 광복을 맞았고, 중학교 2학년 때 전쟁에 휩싸여 부친따라 월남, 전쟁의 와중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실로 불우한 시대인으로 성장했다. 꿈을 먹고 살아야 할 청소년 시절이 두번의 전쟁으로 먹고 살기에 바빴으니 무슨 독서의지가 생길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모든 물자가 부족한 탓에 도서출판물도 아주 적어 사보아야 할 책도, 살 돈도 없으려니와 공공도서관도 거의 없었던 환경이었다.

전쟁이 끝나 서서히 복구되고 산업사회로 변환되면서 먹는 데에만 치중하던 생활이 점차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적 환경으로 성숙될 즈음 전문분야의 깊이있는 연구를 위한 것은 물론, 내가 교수 이전의 한 인간이라는 면에서도 생각해야만 할 도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바른 삶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철학서적들을 편력했다. 60년대를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주름잡던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철학을 탐독했고, 니체, 쇼펜하우어와 하이데거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한 칸트도 내 마음을 스쳤다.

이러한 철학서적들이 나의 의문에 전적으로 해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으나 어렴풋이나마 안개낀 듯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훌륭한 고전이였다.

또한 나는 논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인간과 삶을 함께 조명한다. 그리고 사회를 함께 말해주는 귀중한 내용이 담겨있다. 성경이 종교인의 삶을 담고 있다면 논어는 사회인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눈을 크게 뜨기 위하여

이 은 방

시 조 시 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에 대한 의타심이 큰 것 같다. 모름지기 우리의 청소년들은 온실안의 화분처럼 갇혀진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드넓은 벌판위에서 길건 생명력을 지탱할 수 있는 자생력의 독립심을 길렀으면 한다.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시야를 넓혀 세계로 뻗어갈 의지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젊을 때는 사서 고생을 하며 많은 체험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독서생활을 습관화하고, 시화전이나, 미술전시회를 관람하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자아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명시감상이나 여행을 하며 사려깊은 자아성찰의 계기를 도모하므로써 값진 삶의 터밭을 일궈나가는 일이다.

만약 지나치게 편안하고 안이한 삶만을 추구하거나 향락적 쾌락만을 즐긴다면 그것은 외풍에 시달리며 병들기 쉬운 나약한 풀꽃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은 한 평생 배우며 살아가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기 마련이다. 또 사람은 배우며 살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폭넓은 삶을 영위할 때 어느만큼의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행복이란 의미도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길에서 만납시다

이 종 창

아 산 고 등 학 교
교 장

인생은 빈 술잔과 같은 존재이다. 아무리 가득 채워도 마시고 나면 텅 비어버리게 마련인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소모품이다. 아무리 소중한 인생이라도 다 살고 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인 공수래공수거가 우리들의 인생살이이다.

인생은 연륜이다. 세월은 흘러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마련인 나이테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인생길 위에서 우리의 반성은 아무리 늦어도 빠르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나비로 탈바꿈한 번데기는 한평생 나비로서의 대접을 받지만, 탈바꿈하지 못한 번데기는 일생동안 번데기 취급을 당할 뿐이다. 우리들의 기억에서 아련히 떨어져 간 과거와,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주춤주춤 다가서는 예측불허의 미래와, 뻘뻘 지나가버리게 마련인 현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사람의 몸을 튼튼하게 가꿔주는 양식은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물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정화시켜 주는 위대한 스승은 독서이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말은 독서와 인생이 얼마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가를 잘 증명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책을 읽자. 그리하여 누에고치가 자기가 지은 집 속에 자신이 구속당하는 불행을 자초했듯이 우리를 속박하고 껌데기가 단단한 호두일수록 알맹이가 부실하듯이 속 빈 강정이기 쉬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일구어 가자. 책속에 인생의 길이 있고, 사랑의 미로가 있으며, 지혜의 샘터가 있다.

그 길에서 만나자. 그리하여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한 알의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한 냉철한 두뇌의 소유자 뉴턴과도 만나고,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킨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 피카소와도 만나자. 인생은 끊임없는 조우요, 부단한 해후이다■

존음을 아껴 독서하자

이 준 희

유 성 고 등 학 교
교 장

좋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폭을 넓히고
인격을 함양하는 지름길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
다. 감정이 메마르고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각박한 삶으로
하루를 매워 가는 현대인들이 오늘도 읽는다는 것 자체를 잃
어가는 현실이 한없이 안타깝기만 하다.

나는 특별한 독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주변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띄면 무엇
이든지 읽는다. 그저 일상 접하는 신문에서부터 잡지, 소설,
시, 전문서적 등 다양하게 읽는다. 또 독서하는 시간도 꼭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저 나에겐 습관처럼 되어 버렸다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눈에 띄는 대로 읽을 뿐이다. 버스나 기차
를 타고 가는 동안, 식사를 하는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어느 곳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읽을 거리만 있다면 읽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나의 독서 방법이라고 할 수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있다. 읽는 동안 모르는 것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어이 사전을 찾아 보거나 남에게 물어 궁금증을 해결하는 습관도 빼 놓을 수 없는 나의 독서 버릇이다. 무엇인가 알기 위해 독서하면서 읽는 도중에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지나쳐 버린다면 독서의 의의를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기에 끝내 해결의 방법을 찾아 내 지식으로 만든다.

나는 항상 생각하며 산다. 기회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떠한 기회가 나에게 오도록 스스로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내 삶의 길이기에 독서도 시간이 주어진 뒤에 읽으려는 생각은 해 본 일이 없다. 언제나 내가 시간을 만들고 읽을 것을 찾아 읽는 것 뿐이다. 오늘도 어떻게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더 많은 것을 읽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실천을 할 것인가가 나에게겐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쇄물의 홍수 속에서 산다. 그 많은 것을 읽기 위해 촌음을 아껴 한 편의 글이라도 더 읽어 현대를 대처하는 지식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이여! 시간은 황금이다. 오늘도 한 권의 책을 읽기 위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만들어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싱그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철

민주당 원내총무

청소년기는

나무의 일생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막 벌려는 꽃봉오리쯤이 아닐까 싶다. 꽃봉오리는 자체로도 고풍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나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다. 한송이 꽃으로 만개하려면 아직 폭염의 세월을 견뎌야하고 더욱이 탐스런 과실로 열기 위해서는 사나운 광풍도 헤쳐내야 한다.

한데도 안타까운 것은 갓 맺은 꽃봉오리가 그 고운 태깅만큼이나 여리듯이 청소년의 마음도 다가오는 모진 운명을 이겨내기에는 다치고 상처받기 쉬웁기만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들 주위에는 책이 있다.

책은 누대를 살아온 선인들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혜의 보고다. 책의 외향은 한낱 잉크 바른 종이뭉치에 지나지 않으나 다시보면 그 안에는 험한 길로 나서는 청소년을 위한 무수한 등불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선친께서 교육자였던 나는 어릴때부터 비교적 많은 책을 읽으며 자랐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두 권을 든다면 하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나는 『어린왕자』이고 또 하나는 좀 생소할런지 모르나 『들어라 양키들아』라는 책이다.

생똥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는 ‘마음의 눈’이라야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존재는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새길 수 있었다면, C. W. 밀즈의 『들어라 양키들아』에서는 하나의 사회현상을 놓고 상반된 이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며 사물의 인식은 걸만 보아서는 안되고 이면이나 반대면 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종전정치인이 된 지금도 고마운 지침이 되어주고 있다.

한 정당의 원내총무로서 시간에 쫓기는 요즈음은 솔직히 책을 가까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시간여유가 없을수록 활동을 위한 에너지 충전은 더욱 필요하다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혼음을 아껴 잠을 내고 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정신적 자양이 필요하다는 뜻일게다. 봉오리가 꽃피고 싱그러운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의 자양이 흙 속에 있다면 청소년의 자양은 바로 책안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용기와 희망의 원천

이 철 호

소 설 가
서 을 시 의 원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피로왔다.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피로울 정도로 힘겨운 나날이었다.

특히 소년 시절에는 굶주림의 철학부터 터득해야 할 만큼 배고프고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껌팔이, 신문팔이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담배나 껌, 비누, 과자류 따위를 책가방 속에 몰래 숨겨 넣고 다니다 헌병들에게 들켜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이 고달플수록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은 커져 갔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독서가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당시 나는 낮에는 껌이나 신문을 팔러 다니고 밤이 되어야 겨우 책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읽은 책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들이 나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다. 그 책들은 흡사 나에게 「좌절하지 말고 굳세게 나아가라, 나아가라」하고 외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이 책들의 「외침」대로 좌절하지 않고 굳세게 나아갔다.

또한 나는 독서를 통해 많은 감명을 받고,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었다. 말하자면 독서는 내 영혼의 자양분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몸은 비록 고달프고 굶주린 상태였지만, 독서를 할 때면 늘상 마음이 풍요로웠다.

소년기 청년 시절을 통해 나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비롯해서 호오돈의 『큰 바위 얼굴』,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와 『무기여 잘 있거라』,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위고의 『레 미제라블』, 셰익스피어의 『햄릿』, 공자의 『논어』,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주옥같은 시 등 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것들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나의 문학 활동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위인전을 읽자

임 광 진

서울 Y M C A
사회개발부 부장

중고생 이었을 때 나는 독서다운 독서를 하지 못했다. 주위에 있는 책을 닥치는 대로 아무것이나 읽었고 더우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 보았다. 그때에도 몇가지 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잡지가 있었고 희극이나 모험, 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만화도 있었는데 여기에 넣을 빼앗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소위 세계명작을 문고판이나 다이제스트판으로 읽고는 그 줄거리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빼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몇가지 독서에 대한 당부를 하고 싶어진다.

무엇보다도 좋은 책을 골라서 읽으라는 것이다. 그저 그런 책들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남는 것이 없다. 때로는 쓸데없는 책들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재미나 흥미로 읽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은 책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되거나 두고두고 감동을 주는 것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 유행하는 아주 긴 시리즈로 된 만화를 끝까지 읽어보면 대체로 한가지 이야기를 늘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 사는 알팍한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쁜 학업중에 어렵게 틈을 내어 책을 읽는 것이므로 이왕이면 고전이나 명작을 선택해서 읽으라는 것이다. 만약 외국의 것이면 원서에 충실한 잘 번역된 그리고 완역된 책을 골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른 책은 정독하는 것이 좋다. 원작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사상 또는 주장이나 느낌을 알 수 있도록 정독하도록 하자.

내 경우에는 위인전이나 영웅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앞으로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특별히 플루타크 영웅전은 내가 지금도 가끔 펴보는 책이다.

청소년 시기의 독서는 체계적, 과학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독서-청소년기가 적기다

임 성 재

남 산 도 서 관
열 람 과 장

현대 사회는 정보화사회 또는 고도산업사회라고 한다. 수 많은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관계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바른 독서를 해야한다.

그러나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는 각종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독서의 저해요인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매체를 통한 오락기구들이 젊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어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연히 책과 멀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각종 시험의 강박감에 매여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독서란 인쇄화된 자료, 독서의식, 지적활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독자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다.

독서는 타인의 견해나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이나 도리를 잘 조화시켜 사고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과 판단, 주체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책은 정신적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 포함되어 있어 지적성장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독서의 시기는 청소년때가 적기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자아의식에 눈을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독서를 통하여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줌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개개인의 지적수준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책의 선택방법, 독서의 태도와 습관, 기술습득의 독서지도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므로 독서력을 신장하여 건전한 사고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아를 실현해 나아감으로써 밝은 미래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

임 준 식

순천여자중학교
교 장

나의 청소년기는 해방직후의 혼란함과 피폐함속에서 흘러갔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공식 명칭을 내걸고 정부수립을 했던 1948년은 감격과 희망을 가슴에 안은 채 막연히 들떠 있던 시기였다.

이해 여름, 대학에 다니는 사촌형이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책을 무심코 펼쳐 읽은 책이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었다.

당시에는 남녀 교제니, 자유 연애니 하는 단어들은 신소설에서나 나오는 어구이지 나같은 시골 남학생과는 거리가 먼 단어였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속에서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나에게 ‘제롭과 알리사’의 희생과 신념속에 가득한 사랑은 나의 가슴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넘쳤다. 서로를 속박하지 않고, 상대방의 밀거름이 되고자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라는 믿음이 어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느새 나의 가슴속에 새겨졌던 것이다.

‘나도 꼭 그러한 사랑을 하리라’ 마음 먹었던 그때의 감정은 반백이 되어 노인이라는 호칭을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지금까지도 내가슴 밑바닥에 소용돌이 치며 살아 움직이고 있다. 무심코 접했던 책 한권이 나의 삶에 이렇듯 보이지 않는 길잡이가 되어 준 것은 어찌보면 크나큰 행운을 얻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쉽게 사랑에 빠지고, 성급히 사랑을 확인하려는 요즈음 청소년들에게 자기 희생과 신뢰가 깃든 사랑의 길로—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리라는 확신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대화의 장에서 꼭 이 책을 소개하곤 한다.

단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려는 마음은 애정 문제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남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찾아내려는 마음, 사소한 이해에 급급하기 보다는 정을 나누는 마음, 순간의 쾌락보다는 먼 장래를 위해 인내하는 마음, 이렇듯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넓다란 길로 가기 보다 힘들지만, 「생명」으로 이르는 문이라 여기고, 35년간의 교단생활을 하면서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할머니와 독서

장 혁 표

부산대학교 총장

얘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대부분 이야기꾼이었다. 물론 할머니로 하여금 이야기꾼이 되게 한 것은 그 귀여운 손자들이었다. 밤만 되면 아이들은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졸라댔고 할머니는 이 확실하고 미더운 청중(?)을 상대로 못이긴 채 이야기의 서두를 끄집어 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도, 이야기를 듣는 손자도 마냥 즐거웠다.

매일밤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 헤라자드가 아닌 우리 할머니들은 이야기꺼리가 딸리기 일쑤여서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같은 이야기의 내용을 고쳐서 말해 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얘기를 통해 저마다 상상력을 키우고 세상을 배우고 인간을 배웠다.

그러나 오늘날 할머니와 손자의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요즘 아이들은 듣지 않고 읽는다. 아니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만화를 본다. 심지어 어른도 만화를 즐긴다. 어쩌다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 시간은 T.V앞에서다.

오늘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각형 문화다. 우리들은 한권의 책을 읽기보다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컴퓨터의 모니터를 들여다 본다. 이런 시각형 문화 속에는 옛날 할머니의 이야기에 배어있던 인정과 진실과 꿈이 없다. 더구나 각종 매스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사고와 정서를 주입시켜 수동적 삶이 버릇이 되게 하고 사물에 대한 반응을 충동적이고 즉각적이게 한다. 책이라면 오직 입시와 학업성적을 위한 교과서나 각종 참고서 뿐이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감성은 날마다 이기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우리 속담은 좀 고쳐야겠다. 이 속담이 우리의 상상력을 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책은 인생의 스승이다. 긴긴 우리 인생에 이런 스승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삭막할까...■

나의 인기비결

정 현 석

성신여대 교수

학생때는 뭐니뭐니 해도 친구나 후배 특히 여학생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끄는 사람이 가장 부러웠었다. 반면 자신을 돌아보곤 열등감에 울기도 하고, 집안이 가난해 행색이 껌죄죄한 탓이라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꽤 따르는 건너마을의 선배가 무엇보다도 여학생한테도 꽤 인기가 있다는 소문에 놀람을 금치 못하여 눈여겨 보았다. 그도 그럴것이 키도 작고 학교도 시시한 데다가 덩치나 말소리 등 어느 하나 특별한 매력이 없기에 인기가 있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던 게다. 마침내 발견한 이유는 독서량이 많아 누구에게나 풍부한 화제와 흥미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나 같이 생김새도 별로요, 나쁜 발음에 화술도 빈약한 주제에겐 엄청난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 후 닥치는 대로 읽어댔다. 더구나 10,000권은 족히 될 것이라는 그 선배의 장서량을 부러워하는 가운데 나도 지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꽤나 읽어댔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책을 많이 읽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빌려주는 사람도 제법 있었고, 한 친구는 부모의 책도 기꺼이 빌려주었다. 마침내 주위의 친구는 물론 여학생한테도 닮은 실력을 발휘하였더니 충청도 사투리에도 아랑곳않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곤 ‘아, 이것이구나! 나같은 사람도 책을 읽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나’ 싶어 신바람이 났고 그럴수록 더 책을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난다.

더구나 금년 봄 수필식의 전공서를 펴냈을 때 한결같은 서평이 “어쩌면 정교수는 아는게 그리 많고 글을 재미있게 쓰느냐”는 칭찬이어서 역시 ‘독서덕’하고 우쭐했었다. 그러기에 추석날 일곱시간의 성묘길에 운전대를 잡고 책을 읽어대 수많은 운전자들의 눈초리를 받고선 ‘봐라 교수여서이기도 하지만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는 이색적인 자부심을 남몰래 즐겼던 터다.

탈랜트처럼 잘생겼다거나 개그맨처럼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웃겨 인기를 모으는 사람이라면 모르거니와 변변치 못한 형편이라면 모름지기 책을 많이 읽을 일이다. 무엇보다도 남, 여학생한테서 큰 인기를 모을 수 있다는 데야 이보다 신나는 일이 있을까■

나의 독서의 시작

조 병 화

시 인

나는 경성사범학교로 진학을 했다. 경성사범학교는 중학부 5년을 보통과로 이름하여 5년간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전문부로 2년, 그것을 연습과라고 했다.

보통과 1학년에 입학을 하여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일본인 학생 80%, 한국인 학생 20%, 혼합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1학년 때 나는 문득 일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캄캄한 밤, 기숙사에서 들었다. 일인을 이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일인학생들 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보다 많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실제 많은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의 찰막한 여행이니까.

여행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첫째로는 몸으로, 이 보이는 세상을 보다 많이 여행을 하는 것, 둘째로는 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보다 많이 여행을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하는 것,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내 인생관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내 일생 그것을 실천해 온 것이다.

참으로 지금까지 많은 지상의 여행을 했다(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글을 쓰고, 대학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 책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상상의 여행을 해 왔다(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상).

중학교 시절부터 나는 시집을 참으로 많이 읽었다. 시간도 절약되고 상상력도 충분히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실로 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한없이 많은 상상력을 길러주며, 그 무한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로 여행시켜 주었다. 가장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은 바로 시들이었다. 짧은 시간에.

이리하여 나는 시를 통해서 나의 청춘시절을 살았고, 시의 길로 접어들면서 실로 많은 시들을 썼던 것이다■

내 생의 거울

최 광 만

부천여자고등학교
교 장

내가 『율곡전서』를 처음 접한 것은 15세때이다. 『사서삼경』을 읽다가 우리의 유학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이의 책을 읽게 되었다.

율곡 이이는 잘 알려진대로 철학, 정치, 경제 및 교육을 한데 통틀어 화합시킨 명종~선조때의 대사상가이다. 그의 저서 『율곡전서』 제27권째에 수록된 『격몽요결』은 입지, 혁구습, 지신, 독서, 제의초, 사친, 상제, 제례, 거가, 점인, 처세 등 총1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격몽요결』은 유학입문서라 할 수 있는 수양서로서 청소년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나는 청소년기에 『격몽요결』을 읽으면서 내 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은 내 생의 지침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세우는 것, 몸소 실천하는 일, 부모 섬기는 법, 남을 대하는 방법 등을 성현들의 사상을 인용하면서 소개한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경계하며

손에는 책울, 마음에는 꿈을

반성하고 값지고 정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 왔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학문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여기서 학문이란 ‘아비된 자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자식된 자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하된 자가 임금에게 충성하며, 부부간에는 마땅히 분별이 있어야 하고, 형제간에는 의당 우애가 있어야 하며, 나이 젊은 사람은 어른에게 공손히 해야 하고, 친구사이에는 믿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이는 가르쳤다.

내 생애 크나큰 힘이 되었고, 거울이기도 했던 『격몽요결』의 서문 일부를 되새겨 본다.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막히고 소견이 어둡게 마련이다. 그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글을 읽고 이치를 궁리해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밝혀야 한다. 그런 뒤에야 조예가 정당해지고 행동도 올바르게 된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학문이 사람들의 날마다 행동하는 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이것은 까마득히 높고 멀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행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학문을 자기는 하지 못하고 남에게 밀어 맡겨버리고서 자신은 스스로 이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남보다 앞서는 독서생활

최 완 식

항공대학교 교수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쾌락을 탐닉하는데 급급해 하다보니 그만큼 더 책을 멀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더우기 미래의 우리 민족 번영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요, 국가 발전을 위한 간성(干城)이 될 젊은 청소년들까지 넓고 깊게 독서해야 할 귀중한 시간에 책을 멀리하고 우선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향락의 풍조에 빠져들어 온갖 불미스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을 보자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기성세대의 책임이 먼저 거론되어야 할 것이지만 청소년 스스로의 반성도 절실히 요청된다.

인류 역사 발전의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위대한 우리 선인들은 일찍부터 여가를 선용해서 창조의 힘을 길러 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냈다. 물론 지금 당장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창조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창조능력과 좋은 착상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독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머리 속에 들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남들 보다 더 뽐족한 그 무슨 창의나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독서는 반드시 서재나 연구실이나 학교 강의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동안 약속장소에서, 여행중 기차안에서 또는 여가선용의 방편으로 가치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좋은 책과 그렇지 못한 책이 있는데 각자 교양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 가려낼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양서라면 그 책을 통해서 동서고금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인생의 괴로움을 덜 수도 있으며, 인생의 의미를 맛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색과 각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부디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세속적이거나 속물적인 타성에서 벗어나 훌륭한 고전등을 많이 읽어 좀 더 원대한 이상과 꿈이 있는 훌륭한 인격과 교양을 쌓아 올리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책을 가까이 하자

한 승 희

한국청소년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요즘은 거리가 온통 책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주위에는 책이 많이 있다. 그리고 책을 살 수 있는 경제 형편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럼에도 책 읽는 아이들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중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그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TV가 보급된 데에 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요즘 중학생들은 잠자는 시간,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 밥 먹는 시간, 통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략 5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을 TV 보는 데 소모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한번쯤 TV 보는 일을 가지고 어머니와 다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는 언제나 “TV를 많이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의 이러한 잔소리를 여러분들은 야속하게 생각할 것이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TV를 보는 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TV를 많이 보면 볼수록 TV앞을 벗어날 수 없는 소위 TV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TV 프로그램은 드라마, 쇼, 광고 등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없이 이를 오랫동안 시청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은 끝없이 기복을 이루는 잡다한 감정에 뒤섞이게 되어 온전한 감정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TV 화면이 아무리 생생하게 사실을 형상화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닌 꾸며낸 형상에 불과한 것이다. 허상에 지나치게 많이 접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실에 대한 실제적 느낌을 약화시켜 정신 발달에 유익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TV는 공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흥미도 잃게 한다. 책을 읽는 재미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있으나, TV는 화면으로써 여러분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회는 저렇다는 식으로 문제를 알려준다. TV를 통하면 30분이나 60분이면 이야기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TV보기에 습관화된 청소년들이 힘들여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TV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혼자 조용히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기르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좋은 책을 읽는 일 등이 아닐까 싶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고민하는 사회는 발전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시를 배워서 값진 삶을 이루자

홍 윤 기

한국문인협회
시분과위원회장

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시를 많이 읽도록 권한다. ‘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름다운 것을 비유해서 말할 때 흔히 ‘시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호수나 강, 그리고 산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칭송할 때 ‘시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뿐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비유를 널리 쓰고 있다. 이를테면 ‘시처럼 아름다운 음악’이라느니 또는 ‘시처럼 아름다운 무용’, ‘시처럼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말들도 곧잘 쓴다.

이렇듯 아름답다는 ‘시’를 여러분이 직접 가까이 한다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시를 즐겨 읽고 시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외우는 일은 매우 보람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나는 여러분이 ‘시’를 아끼고 가까이하도록 힘껏 도와 주고 싶다. 더구나 앞으로 시를 공부해서 ‘시인’이 되고 싶은 분들은 더욱 열심히 시를 읽기 바란다.

‘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되풀이해서 읽어 보기 바란다. 읽고 외우는 가운데 어느 사이엔가 자기 마음과 그 시의 깊은 뜻이 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비로소 시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이 모두 다 시인이 되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를 이해하고 시를 쓸 줄 아는 문학적 지성과 순화된 정서와 우리말의 눈부신 표현력을 갖춘 지적인 청소년으로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다. 아무튼 시를 아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욱 더 여러분의 삶을 값지게 이루기를 바란다■

세계에 빛을 밝힌 슈바이처

황 승 룡

호남신학대학교
총 장

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소개하라면 나는 언제나 나의 짧은 시절 신앙과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선생님과 그 분이 주셨던 책을 떠올리곤 한다.

1965년 10월 2일 나는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나의 사랑과 생명을 다하여』라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자서전을 선물로 받았다. 그 책이 당시 나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책의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그 책을 주신 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크게 작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당시 공학도였던 나는 기독교 신앙에 심취하면서부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인생의 진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기였다.

슈바이처는 이미 탁월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바하의 연구자요, 파이프 오르간의 천재적인 연주자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영원히 온 인류의 가슴속에 살아남게 하는 것은 그의 천재성이 아닌 「생명에 대한 외경」과 「아가페적 사랑」인 것이다. 이것이 그를 아프리카 콩고지방에 들어가 의료사업과 전도 사업에 평생을 바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아프리카 대륙은 백인들이 저지른 최악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 캄캄한 대륙을 리빙스톤과 간디의 광채가 밝히기 시작했고, 여기에 슈바이처의 온 생애는 이 대륙의 태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빛을 보낸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책을 선물하시라고…….

‘생의 긍정이란 막연하게 사는 것을 그만 두고 생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경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에 헌신하는 정신적 사업이다’(알버트 슈바이처)■

역사는 학문 · 교양의 기초

황 영 배

서울시 지하철공사
종로 3가 역장

지하철 독서문학회에서 88년부터 직원들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도하면서, 좋은 책 읽기를
포함하여 올바른 독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과 독서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청소년들의 독서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만 권한다면 첫째,
독서지도를 받는 일이다. 왜냐하면 독서지도는 감수성이 예
민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일이
며 낭비적 독서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세계의 근현대사를 읽으라
고 하고 싶다. 역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 역사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담
겨 있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사
는 우리에게서 최우선의 필수 도서가 된다. 문학과 역사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근대의 시작은 조선 왕조
시대의 말기 즉 제국주의 침략시대부터라고 보면 되겠다. 역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사적 사건이나 도서의 출간된 기준으로 볼 때 「임오군란」 「강화도조약」 「명성황후 시해사건」들의 시대로부터 현대까지를 생각하면서 역사 속에 묻은 여러 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독서의 방향이 잡히어 눈이 밝아지고 대부분의 책이 쉽게 이해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의 독서량·장서량은 이웃 일본에 비하여 너무나 빈약하다.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나라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것이다■